

북아프리카지역에서의 부족 집단 간 갈등 양상에 관한 기초연구

마그레브지역의 베르베르족을 중심으로

김정숙 · 김양주 · 임기대

북아프리카지역에서의 부족집단 간 갈등양상에 관한 기초연구

마그레브지역의 베르베르족을 중심으로

김정숙 · 김양주 · 임기대

연구자료 11-65

북아프리카지역에서의 부족집단 간 갈등양상에 관한 기초연구:
마그레브지역의 베르베르족을 중심으로

인쇄일 2011년 12월 20일

발행일 2011년 12월 30일

발행인 채 욱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전 화 02) 3460-1178, 1179

팩 스 02) 3460-1144

인 쇄 예당문화인쇄 ☎ 02-2269-3202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비매품

ISBN 978-89-322-2302-5

978-89-322-2064-2(세트)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북아프리카지역에서의 부족집단 간 갈등양상에 관한 기초연구: 마그레브지역의 베르베르족을 중심으로

김정숙 · 김양주 · 임기대

이 연구의 대상지역은 최근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북아프리카지역, 그중에서도 부족 간의 갈등 양상이 잠재하고 있는 모로코와 알제리의 ‘마그레브’지역이다. 이 두 지역이 ‘마그레브’라 불리는 이유는 역사적 경험과 기억, 문화적 정체성이 같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지역인 모로코와 알제리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북아프리카 최대 토착민인 베르베르족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베르베르인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로 개종한 무슬림으로 이람·이슬람 세계의 일원이지만 자신들만의 언어와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마그레브가 이람·이슬람의 타 지역과 구별되는 것도 이들 때문이다. 큰 충돌 없이 이람인들과 공존해왔던 이들이 20세기 중반 열강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기반으로 정체성 확립에 이어 자기 인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독립 이후 이람·이슬람적 민족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국가적 기획과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정체성, 언어, 문화적 측면은 물론, 이분법적 구도를 구성하고

있는 아랍인과 베르베르인 간의 갈등에 주목하여 그 역사와 현재의 양상을 점검하고자 한다. 연구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연구팀은 다양한 텍스트 연구 이외에도 현지 연구, 즉 필드워크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베르베르 문화권인 알제리의 카빌리·오레스·음자브지역, 모로코의 리프지역을 중점적으로 관찰하면서 연구 조사하였다. 이 지역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징은 물론 국가 내에서의 위상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고,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그레브지역의 베르베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지역에 대한 지형적 특성 및 부족적 체계의 특징과 아울러 동시에 마그레브 개별 국가들의 현재 모습과 지역의 전체적 약사를 서술하였다.

둘째, 연구 주제와 직접 관련되는 토착민 베르베르인에 대한 구체적 고찰과 그들의 정체성의 근거인 베르베르어, 또 그들이 이문화인 아랍 이슬람 문화를 수용하고 저항해온 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

셋째, 갈등의 이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공존과 대립의 역사, 특히 아랍인들과 베르베르인들이 대립하고 있는 이분법적 구도와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찾으려는 베르베르인들의 정체성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알제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립의 사례와 모로코의 경우는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헌법 개정의 내용과 헌법의 향후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넷째, 연구팀이 현지 조사와 연구를 통해 확인한 알제리, 모로코의 베르베르어의 지역별 특성을 서술하였다.

다섯째, 오늘날 베르베르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과 그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점을 소개하며 현장의 역동력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마그레브지역에 대해 지금까지 갖고 있던 편견에서 벗어나 새롭게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언들을 시도하였다.

차례

| | |
|-------------------------|----|
| 국문요약 | 3 |
| | |
| 제1장 서언 | 11 |
| | |
| 제2장 마그레브 개요 | 14 |
| | |
| 1. 지리, 지형, 부족체제 | 14 |
| 2. 마그레브 국가들의 현재 | 18 |
| 3. 마그레브의 역사(略史) | 20 |
| 가. 고대 | 20 |
| 나. 페니키아, 로마 점령기 | 21 |
| 다. 아랍과 오스만튀르크 점령기 | 23 |
| 라. 프랑스의 식민지배기 | 25 |
| 마. 식민지배로부터 독립 이후 | 26 |
| 제3장 마그레브지역의 선주민 베르베르인 | 29 |
| | |
| 1. 베르베르인은 누구인가: 모호한 정체성 | 29 |
| 2. 정체성 확인 근거로서의 베르베르어 | 37 |
| 3. 베르베르인의 수용성과 저항성 | 40 |

제4장 베르베르인과 아랍인의 공존·대립의 역사 48

| | |
|---|----|
| 1. 마그레브의 아랍화: 아랍인의 침공과 이주 | 48 |
| 2. 베르베르인과 아랍인 대립의 이분 구도 | 51 |
| 3. 탈식민과 통합의 이념: 아랍적 정체성 | 53 |
| 4. 베르베르인들의 요구: 베르베리즘(berberism) | 58 |
| 가. 교육에서 아마지그어의 위상 | 63 |
| 나. 베르베어 가운데 어떤 언어를 선택할 것인가? | 64 |
| 다. 아랍어, 라틴어, 티피나그 가운데 어떤 문자체계를 도입할 것인가? | 64 |
| 라. 그 외 시행 차원의 시간 분배, 교과서, 교사 육성 등의 문제 | 66 |
| 5. 극단적 대립의 예: 알제리 | 66 |
| 6. 전환점으로서의 2011. 7. 1 : 모로코 헌법 개정 | 71 |
| 가. 헌법 전문(Préambule) | 75 |
| 나. 제5조: 베르베르어(아마지그어)의 공식어 인정 | 76 |

제5장 베르베르 대단위 지역들과 사람들 78

| | |
|-------------------------------|----|
| 1. 카빌리(Kabylie)의 카빌(Kabyle) | 78 |
| 2. 오레스(Aurès)의 샤우이(Chaoui) | 83 |
| 3. 음자브(M'zab)의 모자비트(Mozabite) | 87 |
| 4. 리프(Rif)의 리팡(Rifain) | 89 |

제6장 오늘의 마그레브 청년들, 일상과 일탈 92

| | |
|--------------------|----|
| 1. 실업문제와 청소년 범죄 문제 | 93 |
| 2. 거리 문화 | 95 |
| 3. 음주 문제 | 96 |
| 4. 성과 결혼의 문제 | 97 |
| 5. 히잡 | 98 |

| | |
|-------------|-----|
| 제7장 결론 및 제언 | 100 |
|-------------|-----|

.....

| | |
|------|-----|
| 참고문헌 | 105 |
|------|-----|

.....

| | |
|----|-----|
| 부록 | 108 |
|----|-----|

.....

| | |
|-------------------|-----|
| Executive Summary | 111 |
|-------------------|-----|

.....

표 차례

| | |
|--|----|
| 표 2-1. 마그레브 국가들의 인구 현황 | 18 |
| 표 2-2. 마그레브의 인구 수 변화 추이 및 예상 | 19 |
| 표 2-3. 마그레브의 언어사용 현황과 무슬림 비율 | 20 |
| 표 3-1. 국가별 베르베르인의 인구 | 35 |
| 표 3-2. 프랑스의 알제리 출신 이민자 | 46 |
| 표 4-1. 알제리 정부의 대베르베르 정책과 베르베르주의의 변화 과정 | 67 |
| 표 4-2. 모로코정부의 대베르베르 정책과 베르베르주의의 변화 과정 | 72 |

그림 차례

| | |
|-----------------------------|----|
| 그림 2-1. 마그레브지역 지도 | 15 |
| 그림 3-1. 베르베르족 분포도 | 34 |
| 그림 3-2. 베르베르어 고대 문자 | 37 |
| 그림 3-3. 베르베르어 현대 문자 | 38 |
| 그림 3-4. 베르베르어의 분포도와 각 지역 방언 | 40 |
| 그림 4-1. 왕립 아랍학연구소 | 74 |
| 그림 5-1. 샤우이들의 모습 | 84 |

글상자 차례

| | |
|--------------------|----|
| 글상자 5-1. 카빌리 출신 인물 | 82 |
| 글상자 5-2. 오레스 출신 인물 | 87 |

제1장

서언

북아프리카는 사하라 사막을 경계로 아프리카 대륙의 북단 지중해와 대서양에 면해 있는 지역을 지리적으로 구분하여 통용되는 명칭이다. 아프리카 대륙의 일부이면서도 사하라 이남의 흑아프리카와는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크게 다르며, 지중해를 통하여 유럽과 긴밀한 교류를 갖고 있는 지중해 문명권에 속한다. 또한 종교·문화적으로 이람·이슬람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동쪽의 미슈렉(이슬람의 동양)과 대비되는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물길들이 만나 온갖 진흙이 퇴적하는 강가’와 같다는 알제리 작가 라시드 미무니(Rachid Mimouni)의 비유처럼 여러 문명이 만나고 혼합되는 교차로와 같은 지역이다.

북아프리카는 20세기 유럽의 식민통치에서 독립한 이래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모리타니 6개국이 점유하고 있다. 6개국은 이슬람교와 이람어로 통일되어 있지만, 인구 비중이나 전통적 생활방식 및 문화적 측면에서 이집트와 나머지 5개국으로 구분된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로 일컬어지는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고도로 농업화된 지역인 반면, 나머지 5개국은 주로 고산지대와 사막을 중심으로 유목과 산지의 소규모

모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문화적·사회구조적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수에 있어서도 이집트가 나머지 5개국 전체 인구에 버금가는 수여서 이러한 구분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2003년 기준, 이집트: 7,019만 명, 마그레브: 8,060만 명). 역사적으로 이집트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아랍어로 ‘서쪽의 섬’을 뜻하는 ‘마그레브(아랍어, 영어 발음은 마그리브)’로 하나의 단일체로 지칭했던 것도 5개국이 상업적 문화적 교류를 통하여 높은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989년 ‘아랍마그레브연합’의 결성은 이러한 역사적 동질성을 재확인하는 기회였다. 북아프리카지역 연구를 목표로 한 본 연구가 특히 마그레브에 집중하고자 한 것은 이러한 구분을 감안한 것이었다.

마그레브는 동서로 지중해 북단의 유럽 대륙과 거의 같은 길이로 뻗어 있으며, 유럽 대륙 면적의 3/5에 해당하는 광활한 지역이다. 리비아를 제외하고는 지중해 해안부터 시작되는 높은 아틀라스 산맥과 사막이 극단적 대비를 이루는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특이한 지형으로 마그레브는 기후, 토양, 수자원 등의 여러 측면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심하여 인간이 살기에 적당한 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지만, 나머지 사막지역은 인구밀도가 희박하다. 전체 면적의 5/6가 사하라와 인근의 사막지로 구성되어 있어 90%가 넘는 인구가 지중해 해안가 고산지대에 집중되어 있다.

괴편화된 지형으로 인하여 마그레브지역 사람들은 산악지대에서 과실수를 중심으로 농사를 짓는 정주민들과 평원과 사막에서 이동 목축을 하는 유목민, 그리고 그 둘을 병행하는 반 유목생활을 영위하였다. 이러한 생활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공통 요소는 가부장적 대가족제를 근간으로 하는 부족체제 전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견고하게 유지되던 부족적 전통은 19세기 초반 시작된 유럽 식민통치 기간에 그 근간이 크게 흔들렸으며, 독립 이후 중앙집권적 현대 국가가 성립되고 현대화 및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급격하게 약화되었다. 현저히 실질적으로 부족체제가 남아 있는 곳은 행정력

이 미치기 어려운 산간지역이나 사막에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재 마그레브지역의 부족 문제는 전통적 소단위 부족 차원이 아니다. 새천년이 시작된 이후 이 지역에서 제기되는 것은 소수민족화한 마그레브지역의 선주민 베르베르인(프랑스어: berbère, 영어: berber, 아랍어: 아마지기)들과 관련된 것이다. 이들이 7세기 이래 정치·사회적으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아랍인들과 여러 면에서 대립하며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마그레브는 특이하게도 베르베르인들의 분포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집트의 시와(Siwa) 오아시스부터 서쪽 대서양 연안까지, 북쪽 지중해부터 사하라 이남의 말리와 니제에 이르기까지 분포되어 있는 베르베르인들은 이슬람교로 개종한 무슬림으로 아랍·이슬람 세계의 일원이면서도 자신들의 언어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으며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마그레브가 아랍·이슬람의 타 지역과 구별되는 것은 이들 때문인 것이다. 큰 충돌 없이 아랍인들과 공존하던 이들이 20세기 중반 식민통치로부터 독립하면서 정체성 및 언어 인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아랍·이슬람적 민족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국가적 기획과 충돌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재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체성, 언어, 문화적 측면에서 이분법적 구도를 구성하고 있는 아랍인과 베르베르인 간의 갈등에 주목하여 그 역사와 현재의 양상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우선 주제의 이해에 필요한 마그레브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베르베르인들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현재 마그레브 사회의 주류를 구성하고 있는 아랍인들과의 갈등을 통시적으로 추적하고, 그 갈등의 양상이 특히 베르베르인들이 가장 많이 속해 있는 두 국가인 알제리와 모로코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다. 또한 베르베르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대단위 지역들에 대한 현지 연구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현 청년 세대의 경향을 검토하여 주제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대마그레브 정책 방향에 대해 숙고하고자 한다.

제2장

마그레브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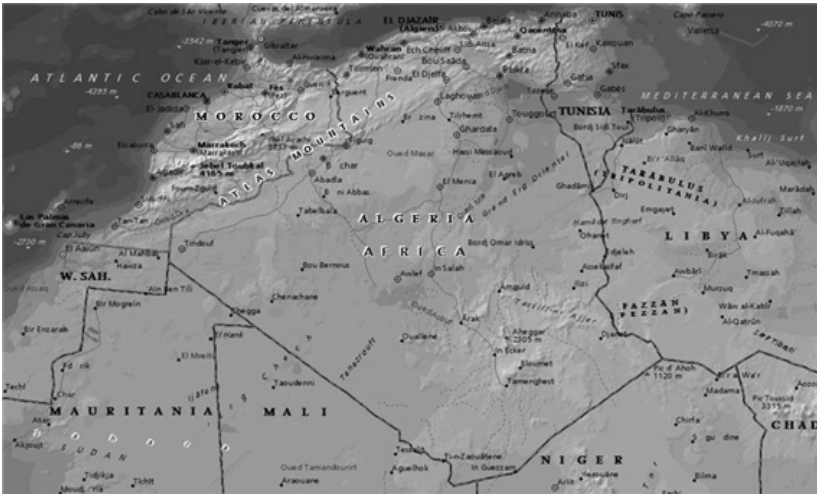
1. 지리, 지형, 부족체제

마그레브는 거대한 아틀라스 산맥들과 고원지대, 그리고 그 너머에 펼쳐진 사막이 극단적 대비를 이루는 지형으로 풍토의 측면에서 지역 간에 심하게 차이를 보이는 지역이다. 서구의 여러 학자들은 마그레브 전체를 통일한 강력한 왕국이 출현했던 기간이 1세기에 불과하며 대부분 기간을 외세의 침공에 취약한 부족 단위 공동체 생활을 영위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마그레브인들의 부정적 성향을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 이들의 생활방식을 결정했던 것은 인종적 특성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지형적 특성이었다.

마그레브 전 지역은 정주민이나 유목민을 막론하고 가부장제를 근간으로 하는 부족체제 사회구조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전통은 현재 크게 약화되었으나 아직도 그 영향이 남아 있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부족체제는 부계 혈족의 대가족이 모여 하나의 클랜(clan)을 이루고, 몇몇 씨족이 모여 분파(fraction)를 구성하며, 분파가 다소 큰 지역을 점유하는 '부족(tribu)'을 구성하는 분절적 사회체계를 말한다. 부족들은 각기 고유한

그림 2-1. 마그레브지역 지도



자료: 구글 지도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히 외부 침입 세력을 방어하기 위하여 일종의 연맹체(confederation)를 구성하였다.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는 분파로 토지를 공유하며,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대가족들은 전통적으로 분배받은 토지를 경작하고 소출을 갖는다. 내부에서는 공동 작업을 하며, ‘체마야’라는 성년 남성만으로 구성된 집담회의에서 마을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결정한다. 경제적으로 생산품의 교환이나 문화적으로 수호 성자에 바치는 의례 등 측면에서, 또한 정치적 측면에서 상호 연합을 통하여 일관성 있게 기능하는 체제이다.

부족은 분파보다 소속감이 약하지만 일정한 지역에 대한 점유권과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사회적 행위들, 즉 공동의 묘지, 길, 목초지 및 목재의 소유, 농사 소출의 공동 관리, 집회, 종교의례 등으로 구체화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으로 방어하여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즉 부족이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 방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

고 할 수 있다. 일체의 권위를 거부하며 강한 연대의식으로 단합하여 외부 세력에 저항한다는 점에서 부족 내부의 결속은 대단히 강하다. 한 예로 카빌리에서 가족이든 마을이든 공동체 일원이 배반 하면 심각한 벌을 받는다. 이들은 부락에 적을 끌어들이는 것을 가장 심각한 범죄로 생각하며, 카빌리 법 체계인 키눈에서 가장 엄격하게 처벌하는 잘못이다. 배반자는 돌에 맞아 죽는 사형을 선고받기도 한다. 범죄자가 도주할 경우에는 영원히 추방되어 다시는 부족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며, 나머지 가족 재산이 몰수되고 집이 파괴되기까지 한다(Camille Lacoste-Dujardin 2005).

이처럼 부족 내부의 결속은 강하지만 부족들 간에는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연합하거나 갈등 관계에 돌입하는 불안정한 관계 속에 있었다. 이들에게 싸움은 일상적인 일이었다. 외부 적의 침입과 같은 위협에 대해서는 연합하여 공동으로 대처하였지만 산지에 살고 있는 이들의 생활 조건은 작은 규모의 단위였어도 서로 화합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가파른 산지에 협소한 농지들, 기뭄 등으로 식량의 자급자족이 어려웠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데 꼭 필요한 소를 훔친다거나 농사의 소출을 잃는 등의 경우에는 부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곤 하였다.

특정한 가문이나 부족이 정치·경제적으로 강성해지기도 하였지만, 마그레브 사회의 기본 구조였던 부족체제는 상호 견제를 통하여 19세기 초반 유럽의 침략 이전까지 크게 훼손되지 않고 유지되었다. 이 부족체제는 프랑스의 식민통치 기간을 거치며 큰 타격을 받았다.

프랑스군은 정복에 저항하는 부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 외에도 부족 간의 분열 전략으로 부족들을 무력화하였다. 예를 들면 식민 침공에 대항하여 저항군을 조직했던 알제리 서부의 압텔카데르 세력에 가담했던 부족들은 압텔카데르가 항복한 이후 해체되고 분산되었다. 부족 내에서 권위를 갖고 있던 개인이나 가문은 그 권위를 잃고, 구심점을 잃은 부족들이 무력화된 것이다. 이러한 일부 부족의 물리적 제거는 아직 부족체제 자체를 위

협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일부 부족은 그로 인하여 더 강력해질 수도 있었다. 해체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대대로 전해왔던 부족의 공유지를 말소하는 「바르니에(Warnier) 법」(1863년 제정)이었다. 토지를 개인 소유화하여 프랑스인 이주자들에게 헐값에 양도하도록 강요한 법이었다. 각 부족이 특정한 분파나 가족에 활용권을 인정하고 부여하며 공동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팔거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토지에 상품의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부족들의 기본적 가치를 불안정하게 하였으며, 전통적 경제를 변질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유목민들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목초지를 잃게 되면서 생존을 보장하는 물질적 생산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목축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되어 식민 정복 이전 약 70%의 주민이 유목민이었다면, 독립 당시 유목민의 수는 2.5%로 축소되었다(Yazid ben Hounet, p. 21). 그 외에도 기존의 정치력을 보유하고 있던 부족장 혹은 유지들을 식민 정부에서 임명하거나 외부인을 지명하여 신뢰를 떨어뜨리거나 그들이 거두던 세금의 액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특히 알제리에서,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많던 북부지역에서 대부족들이 사라지게 하였다. 식민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군에 맡겨 두었던 남부에는 이러한 정책이 거의 실시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부족체제가 유지되어, 알제리 사막지대의 음자브나 호가르지역에는 부족 형태의 집단이 유지되고 있다.

1)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흔히 ‘콜롱(Colon)’이라 칭하는데, ‘콜롱’은 알제리에 거주하며 식민지를 개척하는 프랑스인들을 일컫는다.

2. 마그레브 국가들의 현재

[표 2-1]에서 보듯 마그레브 5개국은 국가의 면적이나 인구의 수에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알제리, 리비아, 모리타니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모로코와 튀니지는 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인구는 알제리와 모로코가 3천만 명이 넘는 반면, 리비아와 모리타니는 그보다 훨씬 적은 1천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인구 비중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국가 규모의 측면이나 정치적 역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알제리와 모로코로 이 두 국가와 튀니지를 포함하여 ‘소(小)마그레브’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마그레브 국가들 간의 격차는 두 국가의 높은 출생률로 인하여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표 2-2]를 보면, 2025년 두 국가의 인구가 각 4천만 명으로 도합 8천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 두 국가의 인구가 마그레브 인구의 절대수를 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수에서뿐만 아니라 이 두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규모와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베르베르 인구 수를 볼 때에도 인접 국가들에 비해 이 두 나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마그레브

▮ 표 2-1. 마그레브 국가들의 인구 현황 ▮

(단위: km², 백만 명, %, 명)

| 국가 | 국가 면적 | 인구 수 | 도시화 비율 (2004년 기준) | 여성 1인당 출산율 (2005년 기준) | 15세 이하 인구 비율 (2005년 기준) | 1천 명당 영아 사망률 (2005년 기준) |
|------|-------|------|----------------------|-----------------------------|-------------------------------|-------------------------------|
| 알제리 | 2,384 | 32.8 | 61.0 | 2.4 | 31 | 32 |
| 리비아 | 1,762 | 5.8 | 86.0 | 3.5 | 35 | 27 |
| 모로코 | 447 | 30.7 | 55.1 | 2.5 | 30 | 40 |
| 모리타니 | 1,027 | 3.1 | 60.5 | 5.9 | 43 | 97 |
| 튀니지 | 164 | 10.0 | 64.9 | 2.1 | 27 | 21 |

자료: Le Grand Maghreb(2006).

표 2-2. 마그레브의 인구 수 변화 추이 및 예상

(단위: 백만 명)

| | 1950 | 1960 | 1970 | 1980 | 1990 | 2005 | 2025 |
|------|------|-------|-------|------|-------|------|-------|
| 모리타니 | 0.8 | 1.0 | 1.2 | 1.55 | 2.0 | 3.1 | 5.0 |
| 모로코 | 8.95 | 11.6 | 15.36 | 19.4 | 25.0 | 30.7 | 38.8 |
| 알제리 | 8.75 | 10.8 | 13.7 | 18.7 | 24.95 | 32.8 | 40.6 |
| 튀니지 | 3.5 | 4.2 | 5.1 | 6.4 | 8.0 | 10.0 | 11.6 |
| 리비아 | 10.0 | 1.35 | 2.0 | 3.0 | 4.5 | 5.8 | 8.3 |
| 합계 | 23.0 | 28.95 | 37.35 | 49.1 | 64.6 | 82.4 | 104.3 |

자료: Le Grand Maghreb(2006).

지역에서 이 두 지역의 전체적인 비중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2-3]은 마그레브 국가들의 종교적 동질성과 언어적·종족적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마그레브 4개국은 우선 종교적으로 전 인구가 이슬람교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쪽의 이슬람 중심 국가들인 이집트나 시리아보다도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언어 측면에서는 양상이 다르다. 국가에 따라 비중은 차이가 있지만 비아랍어권이 상당히 많다. 이들은 물론 무슬림이지만 아랍어와는 다른 고유한 언어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신을 아랍인이 아니라 베르베르인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표상은 상당히 모호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통상 마그레브 사람들은 자신을 알제리인, 모로코인처럼 소속 국가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며, 국제 문제에서는 아랍·이슬람 세계의 일부로 규정한다. 베르베르인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면서도 인종적으로 자신을 다르다고 본다. 다른 모든 소수민족들과 마찬가지로 갈등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다.

표 2-3. 마그레브의 언어사용 현황과 무슬림 비율

(단위: %, 천 명)

| | 아랍어 | 비아랍어 | | 무슬림 |
|---------|----------|-------------------------------------|---------|--------------------------------|
| 모로코 | 66 | 베르베르어(33) | 8,800 | 99(수니파) |
| 알제리 | 82.6(83) | 베르베르어(17) | 4,500 | 99(수니파: 99.5, 이바디파: 0.4(음자브)) |
| 튀니지 | 98.2% | 베르베르어(2.6) | 230 | 99.4(수니파) |
| 리비아 | 92 | 베르베르어(3.8) | 200 | 98 |
| 이집트 | 99.9(86) | 콕트어: 의례어 | | 약 90(수니파) |
| 터키 | 2 | 터키어(80) 쿠르드어(15) 그리스아르메니아어(3) | | 99(수니파: 83, 알라위파: 17) |
| 시리아 | 89 | 쿠르드어(8) 기타어(3) | 1,100 | 89(수니파: 70, 알라위파: 12, 드루즈파: 3) |
| 사우디아라비아 | 95(83) | 이란어(5) | 300~500 | 98.8(수니파: 95.6, 시아파: 약 3.2) |

자료: Maghreb et Moyen-Orient(1997).

3. 마그레브의 역사(略史)

마그레브는 수많은 이민족의 침입을 경험했던 지역으로 문명이 시작된 선사시대부터 페니키아, 로마, 비잔틴, 반달, 아랍,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 등의 문화가 중첩되어 있다. 다음은 마그레브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가. 고대

마그레브에서 인류가 최초로 살았던 시기는 대략 50만 년 전으로 파악된다. 곳곳에서 발견된 화석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신석기시대를 거쳐 베르베르인의 조상이 처음 출현하는데, 이들은 캡시족(Capsien)이라 불리며 기원전 6,800~4,500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팀이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알제리 동쪽의 콩스탄틴과 세티프 남쪽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베르베르와 누미디아인들의 조상이며 알제리 곳곳에서, 특히 사하라의 호가르(Hoggar) 산맥 등에서 많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사하라 사막의 산 타실리(Tassili) 산맥에서 발견된 그림 중에는 나일 강의 배들과 머리를 뿜은 이집트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들이 있다. 기원전 4,000년경은 이집트와 리비아에 맞서 베르베르인들의 투쟁이 시작되는 시점이며, 로마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들과 문화적 혼합지역이 된다.

나. 페니키아, 로마 점령기

기원전 12세기경 페니키아인들은 마그레브 해안을 따라 모로코의 탕헤르까지 수많은 해외 식민지점을 만들었다. 이 도시들을 통해 페니키아인들은 지중해의 무역을 선점할 수 있었다. 페니키아인들과 군사적 충돌을 하면서도 선주민 베르베르인들은 무역에 관한 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기도 했고, 페니키아의 선진 농업기술을 배우기도 했다. 페니키아인들에게 완전히 예속되지는 않았고 다수가 사막과 산간, 동굴지역으로 피신하여 저항을 계속하였다. 이후 로마의 등장으로 페니키아인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지중해를 통하여 북아프리카로 확장하려는 로마와 지중해의 시칠리아를 고수하려는 페니키아는 정면충돌하였고, 로마는 기원전 200년쯤 누미디아의 베르베르인들 도움으로 카르타고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 지역을 장악하였다.

로마인들이 마그레브에 정착하여 지중해 패권 장악을 시도한 것은 기원전 3세기부터이며, 1·2차 포에니 전쟁을 통해 카르타고를 멸망시킨 이후이다. 베르베르의 누미디아 왕국은 유구르타가 로마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였지만 기원전 105년 결국 마우레타니아(현 모리타니)의 왕 보쿠스 1세의 밀고와 배신으로 패배하여 로마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마그레브지역을 장악한 로마 군대는 대개 골루이족으로 구성되어 로마식

의 도시화를 가속화시켰다. 지중해 인근 도시²⁾는 포도주, 곡물, 올리브, 과일, 그리고 동물들까지 로마로 공급해가는 전진 도시로 변모해 갔고, 토착민인 베르베르인들은 로마군병으로 싸우거나 로마인들을 위해 부역할 수밖에 없었다. 이 지역은 천혜의 기후와 자원이 풍부하여 계속 번성해나갔으며, 로마가 유럽에서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나갔다. 이 지역의 집약적인 농업은 로마제국 전체 곡물량의 60% 이상을 공급했다. 로마제국은 축산과 어업, 원형경직장에 사용되는 말의 대부분 또한 아프리카에서 수입했다. 로마인들이 애용했던 말 사육지가 알제리의 티아렛(Tiaret)에 현재도 남아 있다. 알제리의 로마 군사도시 제밀라(Djemila)와 팀가드(Timgad), 티파지(Tipaza), 쉘레셀(Cherchel)을 보면 당시에 진행된 도시화가 로마인들의 도시 모델을 훌륭히 따랐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바다와 항구를 통해 기독교가 들어와 마그레브 지역 교회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교부들을 낳았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는 마그레브지역이 배출한 가장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이다. 베르베르인들이 종교적 동화 내지 로마 기틀릭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마그레브 출신 로마 황제는 두 명이 있었다.

로마제국의 멸망을 촉진시킨 반달족은 410년 로마를 수중에 넣은 것을 시작으로 마그레브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스페인을 차지하고 난 후 반달족은 바이킹족처럼 해적으로 변신했고 이후 모로코를 거쳐 425년 알제리를 공격하였다. 이들은 주로 해군력에 의존하여 약탈하는 수준이었기에 원주민인 베르베르인들의 분노를 샀고, 기독교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 베르베르인들이 서서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100년도 되지 않아 반달족은 물러가고 비잔틴제국이 들어섰다.

비잔틴의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530년대 이탈리아 반도와 로마를 재정복

2) 연구팀의 조사 대상지역인 알제리 동부와 모로코 탕헤르 북부까지를 포함한다. 특히 대서양과 지중해가 맞닿은 탕헤르지역은 페니키아 흔적이 많이 잔존하고 있다. 모로코의 다른 지역이 전혀 페니키아와 맞닿지 않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의외의 모습이다.

할 목적으로 해군력을 증강하고, 증강된 해군력을 기반으로 마그레브의 반달족들을 제압하였다. 반달족들은 533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군대에 항복했고, 이 지역은 비잔틴제국의 수중에 넘어간다. 로마가 다시 이 지역을 지배하고 가톨릭 교회를 부활시키려 했지만, 원주민을 위한 성경도 없었고 당시 로마와 마그레브지역 기독교 간의 신학적 논쟁으로 베르베르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무관심을 촉발시켰다. 소모적 신학적 논쟁으로 힘을 허비하여 이슬람에 대항할 힘을 갖추지 못한 비잔틴은 이후 이슬람이 상대적으로 쉽게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

다. 아랍과 오스만튀르크 점령기

아랍이 마그레브지역에 들어온 것은 670년이지만 705년이 되어서야 대서양의 모로코까지 무슬림으로 개종시켰다. 그들이 쉽게 개종시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베르베르인들이 지지했던 이슬람 정치 노선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아랍인들은 원주민 베르베르인들이 갈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읽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펼친 것이다. 물론 기독교가 이 지역에서 베르베르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부분도 쉽게 개종하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결국 750년, 오늘날까지 그 일파가 남아있는 카와리지파 정부가 세워져 약 150년 동안 마그레브지역을 통치하였다. 이들은 스페인으로 진격하여 프랑스의 푸아티에 전투에서 패할 때까지 유럽에 이슬람교를 전파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연구팀이 조사한 지역인 음자브의 경우 카와리지의 일파인 이바디즘이 남아있다. 카와리지파의 타헤르트 왕국이나 788년 건립된 모로코의 이드리스 왕조, 9세기의 아글라비드 왕조, 10세기 카빌리지역에서 번성한 파티마왕조 등이 초창기의 이슬람 왕조들이다.

바누 힐랄이 들어온 11세기부터 마그레브지역은 제국 단위의 왕조가 등장한다. 11세기 베르베르족 연합체의 통제 아래 금의 교역을 중시한 알모라비

드 제국(1056~1147년)이 있었다. 12세기에는 아틀라스 산맥에 사는 베르베르족과 종교적 동기로 결집한 농민 세력을 바탕으로 알모하드 제국(1147~1230년)이 건설되고, 오늘날의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전체를 포함하는 광활한 지역을 포괄하였다. 알모하드 제국은 13세기 중반에 해체되는데, 식민지시대 이전의 거의 모든 마그레브지역 국가가 그랬듯이 부족 연합에 근거해 제국이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15세기까지 오늘날의 모로코지역에 메리나드 왕조(1296~1465년), 알제리의 틀렘센(Tlemcen)을 중심으로 압멜와디드 왕조(1235~1550년), 그리고 튀니지에 하프시드 왕조(1228~1574년) 등이 명멸하였다.

이러는 사이 유럽의 스페인이 15세기 자신들의 영토에 있던 무슬림을 몰아내고, 알제리의 오랑, 알제에 이어 1510년에는 베자이아(Béjaïa)까지 수중에 넣었다. 하지만 오스만터키와 결탁한 베르베르인들이 쉽게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여 1541년 결국 동쪽지역에서 철수하게 된다.

스페인이 철수하면서 오스만튀르크가 득세하였다. 그들은 모로코를 제외한 마그레브 전 지역을 1550년부터 프랑스가 들어오기 전까지 3세기 동안 지배하였다. 알제와 그 인접 만(灣)은 파사와 데이(dey), 이스탄불 군주의 가신들이 관리하는 지방이 되었다. 알제리의 나머지 지역들은 매년 바뀌어가는 경계선에 따라 3개 관할지로 구분되었다. 각각의 관할지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데이’라 불렀고, 지방 권력을 쥐게 된 이들은 본국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데이들은 알제리의 내부, 고평원 지대, 사막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들은 지역 권세가들이나 종교 평신도회들의 수중에 있게 되었다. 이들은 아랍 혈통을 가진 사람으로 오스만튀르크인들에 맞서 봉기도 하곤 했지만, 과거 로마와 훗날 프랑스인들에 맞선 저항은 하지 않았다. 오스만튀르크인들은 알제리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자 통치자로서만 머물 뿐이었고, 게다가 같은 무슬림이었기 때문이다. 베르베르인들이 큰 저항 없이 오스만튀르크의 지배를 받아들인 것도 이들이 같

은 무슬림이었기 때문이다. 알제리에서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군대와 통치 부분 뿐이었다. 이것은 당시 지중해를 두고 벌인 해상무역 헤게모니 타툼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오스만 튀르크는 프랑스가 이 지역에 오기 전까지 지배하였지만 터키어를 강요하지도 않았기에 베르베르인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이람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라. 프랑스의 식민지배기

1827년 프랑스 영사가 알제 데이 후세인에게 모욕을 당한 사건을 빌미로 프랑스는 이 사건을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영국을 견제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하고 후세인에게 사죄를 요구하였다. 후세인은 이런 요구를 단번에 거절했고³⁾ 프랑스는 즉각 알제 만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1830년 프랑스 함대는 알제 서쪽의 시디-프레즈로 진격하였고 6월 14일 상륙을 감행하였다. 이때부터 프랑스의 식민지배가 서서히 시작되는데, 1834년 드루에 데를롱 총독 파견 이후 1838년 ‘알제리’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때부터 알제리는 프랑스의 제도와 문화, 사상을 강요받게 된다. 프랑스의 알제리 정복 전쟁은 1872년까지 계속되었으며, 마지막 전투는 카빌리에서 있었다. 프랑스는 가장 뒤늦게 정복한 카빌리지역을 기존 이람지역과 분리시킬 목적으로 교육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차별정책을 감행하였다. 그 결과 인접 오레스지역과의 차별화, 또 다른 이람지역과의 차별화가 이루어져 지금까지 베르베르 내부에서조차 서로에 대한 보이지 않는 반감이 존재한다.

1912년에는 모로코를 보호령으로 삼으면서 프랑스의 식민지 경영정책이 이루어졌다. 대규모의 이민 및 유화정책에 따라 프랑스 문화가 확대되었지만 프랑스 교육을 받은 엘리트층 중심으로 이슬람 민족주의가 태동한다. 프랑스

3) 심지어 프랑스 영사를 알제 데이 후세인이 부채로 내리쳤기에 프랑스로서는 큰 모욕감을 받았다고 한다.

는 알제리와 마찬가지로 분할 식민통치를 목적으로 베르베르족에 대한 기독교 포교를 통해 도심의 이람인과 반목을 조장하였고, 베르베르어에 대한 교육과 사용 권장하였다.

1878년 프랑스는 튀니지를 침공하여 보호령으로 삼았다.⁴⁾ 식민지배에 반발하여 튀니지는 ‘청년 튀니지당’을 만들고, 이어 튀니지인의 시민권 승인과 정치 참여, 그리고 헌법 제정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한 하비브 부르기바가 ‘신헌정당’의 이름으로 튀니지의 완전 독립을 요구했다. 이러한 튀니지 민족운동이 증가함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이후 독립을 인정하게 된다.

앞선 세 국가와 달리 리비아의 경우 이탈리아가 관여하게 된다. 터키가 주도권을 잡고 있던 리비아에 이탈리아가 사소한 이유로 터키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양국간 긴장감이 팽배해지지만, 결국 터키가 발칸전쟁에서 패함에 따라 1912년 이탈리아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탈리아가 리비아의 새 총리를 임명하고 행정구역을 관장함에 따라 리비아인들은 반이탈리아 투쟁을 전개해갔다.

마. 식민지배로부터 독립 이후

모로코는 1956년, 튀니지는 1956년, 알제리는 1962년에 각각 독립했지만 이들 국가들이 추구한 탈식민정책은 조금씩 다르다. 게다가 리비아의 경우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지 않았고 상황 또한 달랐다. 리비아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탈리아가 패망함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의 통치를 일시적으로 받긴 했지만, 1951년 아프리카 최초로 독립을 보장받게 된다.

독립 과정이 어떻든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은 이후 아랍·이슬람화라는 노선을 공통적으로 추구했다는 것이다.⁵⁾ 그것은 국민적 정체성과 통일감을 불

4) 베를린 회의를 통해서 프랑스는 튀니지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고 침공하게 된다.

러일으켜야 하는 과제가 절실함에 따른 것이었으며, 서구에 대항할 수 있는 국가적 틀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알제리가 독립 후 탈식민화 정책에 가장 먼저 앞장섰으며, 방식은 다르지만 모로코가 뒤를 따랐고, 튀니지의 경우 이후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했지만 초창기만은 같은 노선을 추구했다. 리비아의 아랍·이슬람화 정책은 1969년 무함마르 알 카다피 대령이 혁명정부를 세우게 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듯 각국의 아랍·이슬람화 정책이 약간씩 다르지만, 반서구, 이슬람으로의 단일화를 외치는 것은 공통적이다.

마그레브지역에 이러한 아랍·이슬람 정책을 표방하는 정부들이 연이어 들어섰지만 동시에 독재라는 악령에 사로잡힌다. 알제리와 리비아의 경우는 풍부한 석유자원을 바탕으로 정책을 펴나기지만 이것이 오히려 서구 국가들의 끊임없는 패권 전략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구의 패권 전략과 결탁하여 이익을 챙기는 독재 정권들이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고,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튀니지와 모로코의 경우도 비슷하다. 이런 현상은 최근 중동의 민주화로 인해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 리비아의 카다피 사망까지 이어져 왔다.

마그레브지역의 민주화 조짐은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주요인으로 작동했다. 장기간의 독재로 인한 정부 부패와 경제적 문제, 늘어난 청년들의 실업문제, 여성의 인권문제, 주택문제 등이 사회의 불안 요소로 자리하였다. 이런 와중에 국민들은 아랍·이슬람화 정책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고, 특히 소수문화권역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들고 일어섰다. 알제리와 모로코의 경우 이런 분위기에 대응하여 정부 차원에서 국민을 달래기 위한 정책이 실시되었다. 특히 소수문화와 언어에 대한 배려 정책은 민주화가 거세게 진행되는 인접 국가와는 다르게 진행되었다.

5) 튀니지의 경우 처음에는 사회주의 노선을 취했다가, 1970년부터 자유주의 노선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마그레브 인접 국가들에 비해 일찍부터 아랍·이슬람과 관련한 정책이 달랐던 것이다.

베르베르 문화는 아랍·이슬람화 정책으로 분산되고 위상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알제와 카시블랑카와 같이 정체성이 모호했던 지역에 베르베르인들의 이주와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베르베르 공동체가 활기를 띠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베르베르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아랍·이슬람화 정책으로 자국 내에서의 베르베르 공동체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아랍·이슬람화 정책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지만 지리적인 근접성이 서로의 접촉에 방해를 주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마그레브에서는 베르베르 문화 간의 동질성을 찾는 베르베르 문화운동이 일고 있다. 아랍·이슬람화 정책에 반대 점진적으로 일었던 이 운동은 현재 라디오, TV, 언론매체 등을 통한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아랍화 정책과 맞물려 베르베르 문화의 통일성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알제리의 카빌리를 들 수 있다. 또 최근 중동의 민주화와 관련해서 문화적 다양성 및 베르베르 문화를 비롯한 다문화 포용 정책에 강한 인상을 주고 있는 곳은 모로코이다. 이러한 마그레브지역의 베르베르 문화 간의 동질성 회복 운동들은 상당 부분 정치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제3장에서 마그레브의 베르베르인, 그들의 문화, 최근의 움직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

마그레브지역의 선주민 베르베르인

1. 베르베르인은 누구인가: 모호한 정체성

마그레브는 아랍·이슬람 세계의 일원이다. 가장 중요한 정신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종교적 측면에서 이슬람교로 통일되어 있고, 아랍어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아랍·이슬람 세계의 서쪽 축인 마그레브는 이집트와 수단의 중간지대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인도네시아에 이르는 광대한 이슬람지역들과 구별되는 중요한 변수가 있다. 무슬림 가운데 ‘베르베르인’이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개인들과 집단이 그것이다. 이 집단은 특정 지역에 고립되어 살고 있는 소수민족이 아니라 마그레브 전 지역에 분산되어 있으며 수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그레브에서 여행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외국인들이 자신을 ‘아랍인이 아닌 베르베르인’이라고 소개하는 지역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마그레브의 주도적 두 국가인 알제리와 모로코에서 특히 이런 일

을 많이 겪게 된다.

마그레브지역의 토착민인 이들의 존재가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전문가 사회에만 알려져 있을 뿐 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아 지역에 대한 이해를 제한하고 있다. 통상 인식하고 있듯이 마그레브를 이람·이슬람지역으로만 분류하고 이들의 존재를 간과하는 것은 실제 지역에 대한 몰이해가 될 수 있다. 예컨대 현재 우리는 마그레브지역 대부분을 이람어·프랑스어권 지역으로 간주하고 대응하고 있는데, 여기서 프랑스어권으로 분류하는 주된 이유가 프랑스의 식민통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독립 후 반세기가 흐른 현재까지 남아있는 옛 식민 종주국의 잔재 때문이기도 하지만, 독립 후 이람화를 표방하는 과정에서 억압되었던 베르베르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도 있다.

베르베르인은 누구인가, 그 기원과 명칭의 유래는 어떤 것인가 등을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베르베르의 본질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학자들끼리조차 여전히 많은 논란의 대상이다.

마그레브 선주민을 일컫는 베르베르(berbère)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자신들의 문명에 속하지 않는 이방 민족, 즉 자신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라는 의미의 ‘βάρβαρος’에서 유래되었다. 다시 말해서 베르베르란 그리스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통칭하는 단어였다. 이 단어가 어떤 과정으로 북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통용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로마 시대를 지나 반달, 비잔틴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사용되어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으며, 베르베르인들도 스스로를 그렇게 지칭하고 있다.

베르베르인들이 자신들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단어는 최근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각 클랜(clan)의 이름, 부족의 이름, 부족 연맹체의 이름, 더 나아가 예컨대 카빌리(Kabylie), 오레스(Aurès), 리프(Rif), 수스(Sousse) 등 분포되어 있는 지리적 명칭이 전부였다. 이들은 아직도 지역의 이름에 따

라 불리고 있다. 현재 베르베르인들이 베르베르어로 자신들을 지칭하는 명칭은 베르베르어인 아마지그[amazigh, 복수형은 아마지겐(imazighen)]이며, 이 단어는 ‘자유인’ 혹은 ‘고상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1950년대 이후부터 널리 통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베르베르어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즉 북아프리카 혹은 마그레브는 타마지하(Tamazigha)이고, 그들의 언어인 베르베르는 타마지그트(Tamazight)이다.

베르베르인들은 명칭에서뿐 아니라 인종적 기원의 측면에서도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다. 마그레브지역을 아랍·이슬람지역으로 보는 관점에서 함족이나 셈족으로 흔히 분류하므로 아랍계로 분류한 것은 당연해 보인다.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어느 곳보다 인종적으로 단일하게 보면서 생물학적으로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⁶⁾ 그러나 기원전 5세기 헤로도토스는 북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만났던 현지인들을 트로이인의 후예로 분류했다는 기록도 있으며,⁷⁾ 프랑스 식민시대 때는 이들을 켈트족의 후예라고 보기도 하였다. 후자의 분류는 식민지배를 원활히 하고 부족 간의 분열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식민지배 당국자들이 만들어낸 책략이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그 외에도 베르베르인들을 인종적으로 분포가 방대하고 전 백인에 해당할 정도로 광범위한 코카서스계에 속한다고 분류하기도 한다. 코카서스의 베르베르-유로아프리카 인종이라고 정의한다면 흑·백 양 인종의 접촉지역에 살기 때문에 양쪽의 특징이 혼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베르베르인과 중동의 베두인, 유럽의 라틴, 게르만인들이 모두 아리아족의 일파인 점을 고려한다면 명확하게 인종적 구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분명하고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단지 피부색은 달라도 키가 크고 눈이 크며 쌍꺼풀이 있

6) 이규철 외(2006), p. 48.

7) <http://fr.wikipedia.org/wiki/Berber%C3%A8res>.

고 코가 크다는 외형적 특징이 비슷할 뿐이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베르베르인들을 인종학적 통일체로 정의할 수는 없다. 더욱이 마그레브지역은 외세의 침공이 빈번했던 지역으로 장시간에 걸쳐 혼혈이 이루어져 현재의 베르베르인들의 인종적 특징은 더욱 모호해졌다. 예컨대 베르베르인들의 가장 중요한 밀집지역인 카빌리에서도 외관상의 신체적 특징은 물론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피부색에서도 특징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다양했다.

현지조사 기간 동안 만났던 베르베르인들은 그 차이를 알아볼 수 있다고 단언하기도 하였다. 언어 외에도 의복, 행동, 음식, 종교적 관습 등에서 베르베르인 특유의 구별되는 어떤 특성이 있으며, 출신지역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이고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이러한 특징들이 객관적이고 엄밀한 인종 구분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재 마그레브의 베르베르인을 규정하는 대비항으로 제시되는 아랍인들과의 구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무슬림이 절대다수로 종교적으로 통일되어 있어 베르베르인과 아랍인은 사회·문화적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베르베르인의 집단 거주지 카빌리지역 연구를 통하여 사회학 이론을 정립한 프랑스의 사회학자 부르디외가 “아랍족과 베르베르인을 확실히 가려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인 것이다(Bourdieu 1961, p. 59). 그의 말처럼 베르베르인들은 종족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집단이 아닌 것이다. 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원칙적으로 베르베르인이며, 아랍인들의 종교와 언어에 장시간 노출된 이후 다수의 베르베르인들이 스스로를 아랍인으로 규정하지만 아랍화된 베르베르인인 것이다.

마그레브 전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최대 소수민족인 베르베르인들을 하나의 종족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베르베르’라는 명칭과 함께 인종적 구분 혹은 하나의 부족으로 소개하고 있는 백과사전들이 그 예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베르베르란 인종적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부족이라고도 볼 수 없다. 또한 부족이란 내부 결속이 강한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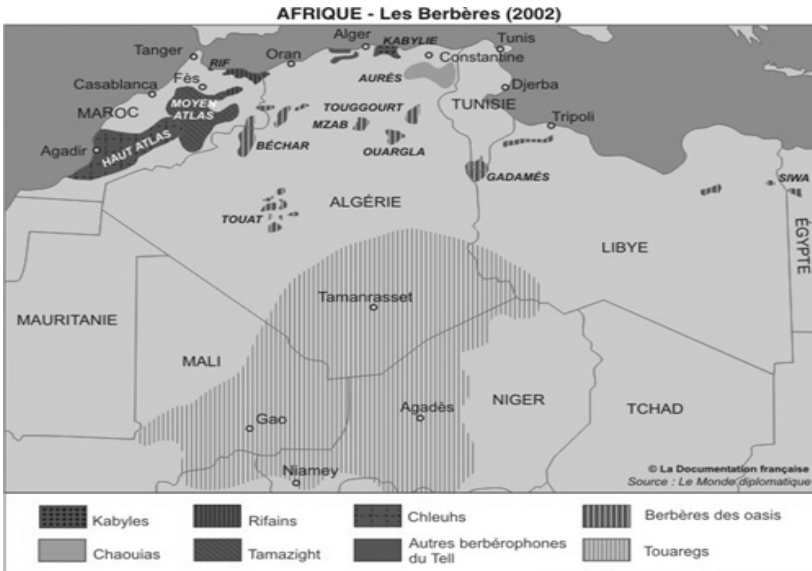
회 조직의 한 형식으로 특수한 자율적 경제 조직 방식과 여러 목표를 위하여 하나의 인격체로 행동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베르베르인들이 이러한 부족의 의미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Yazid Ben Hounet 2009, p. 9). 오히려 여러 부족들의 거대한 연맹체로 지리적 역사적 개념에 가깝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베르베르인들에 대하여 말했듯이 ‘부족(tribu)’이라는 용어보다는 ‘문화권(cultural area)’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타당해 보인다.

베르베르인들은 현재까지 그 인구 총수에 대하여 정확하게 밝혀진 통계가 없다. 주요 분포 국가인 알제리나 모로코에서도 이들에 대한 억압 정책으로 인하여 한 번도 공식적 인구 통계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리비아의 경우도 카다피 정권하에서 이들은 억압의 대상이었지 주류가 아니었다.⁸⁾ 베르베르어를 하나의 공식적인 언어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 사용자를 통한 정확한 통계 자료도 없다. 마그레브 관련 여러 문헌이나 인터넷 자료들에서 제시하는 통계들은 개략적 추산이다. 인구 수도 적든 크든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상 서쪽 카나리아 군도에서 동쪽으로 리비아와 이집트 사이 시와 오아시스까지, 북쪽으로는 지중해부터 남쪽으로 사하라-사헬 경계까지 분포되어 있는 베르베르어 인구를 2천만~3천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추산하는 통계에 따라 약 1천만 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마그레브지역에 분산되어 있던 마그레브인들이 근대국가 체제로 이행하면서 여러 국가로 흩어져 있는 것도 베르베르인들의 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다. 니제르, 말리, 부르키나파소, 모리타니아, 리비아,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 알제리가 모두 이들의 분포지역이다. 베르베르인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수 있는 규모로 분포되어 있는 곳은 알제리와 모로코인데, 이

8) 리비아에는 140여 개 이상의 부족이 존재한다. 카다피는 국가적 통일과 적절한 통치를 위해 이들 부족들 간의 갈등과 반목을 적절하게 이용해왔고, 자신이 베두인 출신이기에 베르베르족은 탄압과 억압을 하였다.

그림 3-1. 베르베르족 분포도



자료 구글 지도

두 국가의 전체 국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1]은 알제리 카빌리 태생 베르베르인으로 현재 프랑스 파리 국제동양어학원 (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Orientales)에서 베르베르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언어학자 사케르(Chaker) 교수의 추산이다. 그가 제시하는 통계는 제2장의 [표 2-3]에서 제시한 수치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베르베르인들은 사회구조적으로도 동일한 특징들로 정의하기 어렵다. 알제리, 말리 등 몇 개국에 걸쳐 사하라사막에 살고 있으며 유목민의 상징처럼 일반에 어필하고 있는 투아레그족은 대표적 베르베르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상 베르베르인들 모두가 유목민인 것은 아니다. 마그레브 북부 카빌리와 오레스 산악지역, 모로코 리프 산맥과 하이 및 미들 아틀라스 지역에 밀집하여 살고 있는 베르베르인들은 유목과는 관계없는 정주민들이다. 또한 지중해 연안 인구 밀집지역과 인구가 희소한 사막지역 사이 평원이나 산지와 평원

표 3-1. 국가별 베르베르인의 인구

(단위: 명)

| 국가명 | 인구수 |
|-------------------------------------|---------|
| 알제리 (카빌리, 샤우이, 음자브, 투아레그 외) | 6백만~7백만 |
| 모로코 (리프, 미들 아틀라스, 하이 아틀라스, 수스 외) | 1천 2백만 |
| 튀니지 | 5만 |
| 모리타니 | 5천~1만 |
| 리비아 (제벨 네푸사, 즈아라) | 50만 |
| 니제 | 30만~40만 |
| 말리 | 5천~1만 |
| 이집트 | 10만 |

자료: Berbères aujourd'hui(1998).

므로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대가족을 근간으로 하는 가부장적 사회인 점도 공통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투아레그족 일부는 모계 사회가 있다는 점에서 엄밀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대가족→부족→부족연맹체로 점점 커진 사회구조가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베르베르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구비문화를 포함한 문화유산들이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부족적 인간관계, 부족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조직과 그와 관련된 특수한 윤리, 분파→부족→부족연맹체로 이어지는 사회적 분절을 넘어서는 상징적 공유 요소들, 즉 교단이나 성자 숭배 등은 공통적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요소들이 베르베르인만의 특성이라고 보지 않는다. 투아레그를 제외한다면 마그레브 전체는 사회·문화적으로 높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적 전통 측면에서 구분되는 것은 오히려 도시 사회와 농촌 사회의 구분이라

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적 차이는 오히려 도시-농촌이라는 지역적 대비가 문자문화 대 구어문화, 중앙집권적 문화 대 부족문화 등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베르베르인의 정의는 북아프리카지역에 살고 있는 토착민이다. 대대로 살아 온 사람들은 모두 원칙적으로 베르베르인이며, 아랍어를 쓰는 아랍화된 베르베르인들도 아랍인들의 종교와 언어에 장시간 노출된 이후 언어·문화적으로 서서히 아랍화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적·문화적으로 막연한 유대감에 기초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기원으로부터 인종적 구분과 문화적 특징이 모호한 상황에서 베르베르인들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가장 유력한 요소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이다. 이 점에서는 지역을 떠나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Yves Lacostes 2011, pp. 35-37). 그러나 언어를 통한 정체성의 규정조차도 실제 현실에서 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변화 속에서 언어를 상실한 베르베르인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튀니지의 제르바 섬의 경우는 지역민들이 자신들을 베르베르인으로 귀속시키고 있으나 베르베르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소단위지역들이 아랍인들과 공존하면서 급격하게 고유한 언어를 잃고 있으며, 이것은 청년 세대의 경우 더욱 빈번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한국정부의 지원으로 새우 양식장이 건설되고 있는 알제리의 우아르글라(Ouargla)지역은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전통적으로 베르베르인들의 도시였으나, 석유자원이 채굴되기 시작한 이래 외부 인구의 유입으로 이러한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다. 반면에 인구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스스로 아랍인으로 규정하는 인구 가운데 베르베르어 지역이나 인접지에 살면서 베르베르어 구사자에게 배워 베르베르어를 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사업상 이유로 카빌리지역에 이주한 어느 사업가의 가족은 베르베르어를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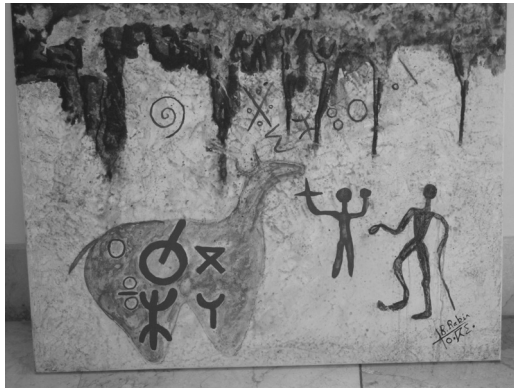
9) 연구팀의 현지 조사 결과 이 지역에서는 베르베르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소단위 마을의 경우 지명이나 이름에서 베르베르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상생활에서 쓰고 있었으며, 자녀들의 경우는 베르베르인과 거의 같은 수준의 베르베르어 구사자들이었다.

2. 정체성 확인 근거로서의 베르베르어

마그레브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언어인 베르베르어의 어원은 이론적으로 확실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흔히 햄·셈어족에 속한다고 하지만 고유한 음성법칙, 구조, 문법, 구문을 가지고 있어 아랍어와는 다른 독창적 언어라

그림 3-2. 베르베르어 고대 문자



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베르베르어 모든 방언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도시와 평원은 아랍화되었지만 산지와 사막 등 서로 연결되지 않는 지역 방언들 속에 베르베르어는 현재까지 남아 있다.

정치적으로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된 기간이 길지 않았던 마그레브지역에서는 언어의 통일이나 표준화가 시도된 적이 없어 각 지역별로 외부 언어, 특히 아랍어로부터 받은 영향의 정도 등에 따라 여러 방언들로 나누어져 있다. 각 지역들에서 언어가 서로 다르게 발전되어온 것이다. 방언들은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 모로코 미들 아틀라스 산지의 방언은 타마지트(Tamazight), 카빌리는 타크바일리트(Taqbaylit), 모로코 리프 산맥의 방언은 타리피트(Tarifit), 수스와 모로코 남부 쉘뤼흐(Chleuh) 부족의 방언은 타셀히트(Tachelhit), 말리 방언은 타마세크(Tamachek 투아레그), 알제리에

서 남서부는 제나티아(Zetania), 음자브 부족 탐자비트, 오레스 지방의 타샤우이트(Tachaouit, 샤우이아) 등이다.

방언들 간에는 친연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북부 마그레브(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와 남

부 사하라-사헬(투아레그)이다. 그러나 그 차이가 어휘, 발음, 구문 등 어떤 층위에서 어느 정도로 다른 것인지 비교 연구가 아직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공식적 입장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현지 연구조사 과정에서 실시한 면담에서는 ‘다른 지역의 베르베르인들과 만났을 때 상호 즉각적 이해 소통이 가능한가?’, ‘어느 정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통하여 그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였는데, 그 대답은 대단히 다양했다. ‘서로 이해가 가능하다’에서 ‘상호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단어만 서로 다를 뿐이다’ 등 다양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알제리나 모로코의 라디오, TV 방송에서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각기 다른 시간대에 편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의 차이가 적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지역어들 간에 소통이 가능하다면 현재처럼 3개 혹은 그 이상의 언어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방송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베르베어는 사용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최근까지 문자가 없는 구어라는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유적에 남아 있는 고대 문자 ‘리비크(Lybiq)’가 이들의 문자라는 것이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다. 베르베

그림 3-3. 베르베어 현대 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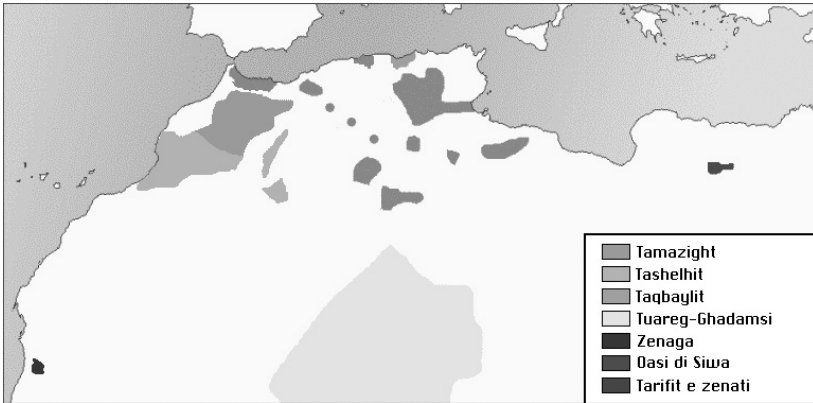


르어와 같은 자음 체계를 갖고 있는 리비크어는 페니키아어에서 파생되었거나 투아레그족이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티피나그의 조어인 리비코-베르베르(Libyco-Berbère)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사용된 지역도 오늘날의 튀니지라고 한다. 리비크어는 문헌으로는 별로 남아 있지 않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페니키아 알파벳(문자)에서 파생되었다고 보며, 리비크어와의 유사성을 통해 베르베르어의 기원을 찾고 있다. 리비크어가 페니키아어에서 파생되었을 것이라는 근거는 여럿 제시하고 있지만 이 문자가 베르베르어의 문자라는 점은 아직 확실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문자가 없는 구어였던 베르베르어는 지역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문자화되었다. 모로코 베르베르인들은 아랍어 문자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알제리의 카빌리에서는 식민통치 기간 동안 프랑스인 신부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표기법을 이어받아 라틴어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구비문학, 더 넓게는 베르베르 산문문학(설화, 전설, 신화 등)과 운문문학(민요 등) 외에 현대 연극이나 영화까지 라틴어 표기를 통하여 문자화하였다.

고유한 문자를 간직해온 것은 투아레그족인데, 이들의 문자를 ‘티피나그(tifinagh)’라고 부른다. 이 문자 체계는 사적인 용도에 그쳐 불안정하였으며 언어적 권위를 갖고 있지 못했다. 그러데 최근 카빌리를 비롯한 알제리지역 베르베르인들과 아울러 모로코 베르베르인들을 위시한 일부 사하라지역 베르베르인들이 이 문자 체계를 부활시켜 공식 문자로 정착시키려 하고 있다. 모로코에서 티피나그의 사용이 활발하여 서적이 출판되고 있으며, 특히 학교 교육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 리비아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카다피 독재정권 퇴진을 요구했던 리비아의 혁명 기간 동안 리비아의 베르베르인들이 베르베르적 정체성 인정에 대한 요구를 하며 베르베르어 부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들도 티피나그 문자를 사용하여 어린이들에게 베르베르어를 교육하고 있다.

그림 3-4. 베르베르어의 분포도와 각 지역 방언



자료: 구글 지도

3. 베르베르인의 수용성과 저항성

베르베르인들의 영토였던 마그레브는 외세의 침공이 대단히 빈번했던 지역이다. 침공은 주로 지중해 북동쪽에서부터 시작되어 주기적으로 계속되었는데, 역사가들은 이러한 빈번한 공격의 이유로 지중해 북부 유럽의 물질문명의 발달, 그리고 세력 확장의 경향과 아울러 베르베르인들이 상대적으로 물질문화, 사회 및 정치구조가 취약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Mohammed Alahyane 2004, pp. 19-24).

마그레브를 처음으로 침공한 외부 세력은 현재 튀니지에 카르타고(기원전 841년)를 건설한 페니키아이며, 이후 그리스, 로마, 반달, 비잔틴 등 여러 외부 세력이 연속하여 마그레브 해안지역을 점령하였다. 이처럼 외부의 공격을 빈번하게 받았던 반면, 마그레브 내부에서 중앙집권적 전제 왕조가 지배했던 기간은 지극히 짧았다. 북아프리카지역의 가장 강력한 전제 왕조는 이집트 파라오 왕조뿐으로 리비아 출신 파라오들이 기원전 10세기부터 수 세기 동

안 이 지역을 통치했었다(기원전 1227~935년). 강력한 파라오 람세스 3세도 베르베르인들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여 베르베르인들이 점차 나일강 델타에 정착하여 파라오 군대의 용병으로 진출했으며, 이들 중 일부가 파라오의 왕권을 차지하여 기원전 715년 24왕조까지 이집트를 통치하였다.

마그레브에서 베르베르인들만의 왕국이 출현하여 베르베르의 통일을 구상하고 실현하려 했던 것은 기원전 3세기 말이었다.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던 3명의 왕 시팍스(Syfax), 마시니사(Massinissa), 바카로(Bagaro)가 그들이었는데, 이들 사이의 내분으로 결국 북아프리카 해안지역은 로마제국으로 편입되었다. 영토를 확장하고 군대를 조직 및 운영하였으며, 로마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왕’이라고 불렸으나, 왕국을 그리스-마케도니아 모델로 통치하고자 여러 치적을 남긴 마시니사(기원전 240~148년)왕도 왕국을 안정시키는데는 실패하고 후계자를 로마에 맡기면서 베르베르 왕국 건설에 실패하였다. 로마에 반기를 들어 베르베르인들의 전설적 영웅이 되고 있는 유구르타(Jugurtha)는 로마의 영토 확장을 저지하며 로마제국 전체를 흔들리게 한 저항을 하였으나, 내부의 적으로 로마의 포로가 되었다. 정치적 수완의 미숙함과 내부 경쟁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로마제국의 통치 아래에서도 베르베르인들의 저항은 계속되어 로마시민권을 받고도 로마의 지배에 합류하지 않았으며, 산지와 사막으로 피신하여 저항을 계속하였다. 로마제국에 이어 마그레브지역을 점령했던 비잔틴제국도 타 지역에서와 달리 마그레브에서는 내륙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지중해 해변의 근거지들에 머물며 점령지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급급했다. 베르베르인들은 전투에서 패배하면 산지나 사막으로 피하면서 이슬람 도래 시기까지 크고 작은 전투를 벌였다.

중앙집권적 정치체제가 성립하지 못했던 또 다른 원인은 소위 ‘지역적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베르베르 부족사회의 평등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시 민주주의’는 우선 베르베르 정주민들 사회에서 볼 수 있다. 부족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분파(fraction)의 공동체 생활은 성년 남성들만으로 구

성된 집단회의의 결정에 따라 운영되었다. 부락의 관례규범을 작성하고 적용하는 것 외에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나 분쟁의 조정, 주민 전체와 관련된 사항들, 예컨대 도로, 축제, 집단 의례, 상호부조, 갈등 등을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모든 참가자가 발언권을 가지며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 이보다 더 큰 조직인 부족과 부족의 연맹체 차원에서도 같은 형식의 집단회의에 의하여 공동체가 운영되었다. 그 집회는 각 부락의 집단회의에서 선출한 사람들로 구성된 일시적 조직으로 대기 상시 합의체나 정기적 회합도 없고 대표도 없었다. 이 회의에서도 결정은 만장일치로 내려졌다. 각 분파들은 외부의 적이 누군가에 따라 모였다 흠어지곤 하여 분파가 속하는 상위 단위들은 항상 달라질 수 있었으며 그 대표들도 한시적으로 지명되었다. 이와 같이 유연한 조직이었으므로 권력이 한 사람에게 장시간 집중될 수 없었다. 국가 권력이 성립하려면 부족을 규합하여 위계질서화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이 어려웠던 것이다. 마그레브에서 뿌리를 내린 이슬람의 종파가 가장 평등주의적이며 청교도적인 카와리지파였던 것은 우연히 생긴 결과는 아니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유목 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계속 이동하는 상황에서 집단들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집단들이 지켜야 하는 일종의 관습규범들이 있어야 하며, 이것은 각 구성원 사이에서만 아니라 분파나 부족 사이에서도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였다. 어떤 구성원이나 집단이 더 많은 권력을 갖고자 하면 이러한 규범은 지켜지지 않으며, 균형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베르베르 유목민들의 민주주의는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집단의 대표도 선거가 아니라 사회적 위엄이나 능력에 따라 연장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하였다. 책무가 중한 데 비하여 보상이 없어 보통 분파의 대표자들은 이 직책을 맡으려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유목이나 반(半)유목 집단에서는 전쟁, 이동 목축, 재판 이 세 분야에서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이 지도자 역할은 모두 한시적인 것으로 맡았던 임무가 끝나면 그만두며, 이동 목축도 1년 단위로 역할을 담당하였다(Chafik 2005, p. 91).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특정 인물이 패권을 잡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정치적 세력을 갖고자 하는 인물들은 모두 외부 태생으로 자처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족 단위 생활 전통은 20세기까지 계속되었는데, 이것이 베르베르인들의 강점이자 약점이었다고 분석하는 견해가 많다. 중앙집권적 정치체제가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집트의 파라오나 유럽식 봉건주의 아래에서 볼 수 있는 집단적인 노예화를 피할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외부 세력의 침공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저항할 수 있었던 것도 또 다른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몇몇 부족들이 포위되면 나머지 부족들은 산이나 사막으로 피신하여 침략자들을 공격하였고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나면 베르베르인들은 점유지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인종적 혹은 언어적 유대감이 막연한 상황에서도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었으며, 자신들의 문화적·언어적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약점이 되기도 하였다. 베르베르인들은 외부에 맞서 항상 방어적 입장에 있었다는 것이다. 어떤 분파가 지배적 영향력이나 우월성을 확보하는 것을 서로 방해하여 다른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군사적 힘을 축적하지 못하고 항상 수동적 입장에 머물렀으며, 결국은 아랍인들의 침공과 이주에 의하여 분산되고 소수민족화되었다(Chafik 2005, p. 92).

이와 같은 역사에 비추어 베르베르인들은 외부 세력에 대하여 수용적 태도를 보이는 유연함과 그와 반대로 자신들의 존재가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에는 격렬하게 대응하는 저항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베르베르인들은 정복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새롭게 침공하는 외부 세력과 자발적으로 결탁하곤 했다. 카르타고를 몰아내기 위해 로마와, 로마를 몰아내기 위해 반달과 협력하는 식이었다. 반달족이 로마를 공격하자 가담하여 협력했지만 자신들을 공격하자 맹렬한 전투를 벌였다. 또한 비잔틴이 반달 점령지를 공격하자 처음에는 중립적 태도를 취했던 베르베르인들은 이후 비잔틴과 전투를 하였다.

이슬람으로 자발적으로 개종하여, 8세기 초 지브롤터해협을 건너 이베리아 반도를 이람화한 주역이 실상 베르베르인들이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지브롤터해협에 이름을 남긴 타릭 이븐 지야드는 당시 베르베르군을 지휘했던 군 사령관이었다. 마그레브의 이람어화 과정도 이 같은 유연성과 저항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람어가 마그레브에 도입된 지 13세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모로코의 산지와 알제리의 카빌리, 사하라에는 베르베르어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에서 보듯 이람어화는 완결되지 않은 현재진행형이다.

대부분의 베르베르지역은 중앙정부와 갈등관계에 있었고, 행정적으로 중앙정부의 완전한 통제를 받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이슬람화되기는 했으나 독특한 종교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음자브 지역은 카와리지파의 한 분파 이바디즘으로, 투아레그는 생활방식과 문화·정치 조직(부족위의 권력), 카빌리는 반이람적 독자적인 문화 유지 등으로 강한 정체 의식을 갖고 언어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의 비종교적 성향, 서구문화로의 동화와 같은 사회·역사적 요소들 때문에 중앙정부와 권력으로부터 장시간 배제되며 지속적인 갈등 관계를 유지한 점은 원래의 비협조적인 전통과 함께 저항적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베르베르인들의 이러한 독특한 기질과 문화적 습성들은 베르베르 운동의 전개 방향을 기밀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들로 일부는 구심력으로 일부는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범베르베르주의의 근간이 될 수도 있고, 북아프리카지역 내의 여러 갈등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어떤 계기를 만나면 그들은 단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이들이 집단적으로 분포해 있는 집단 거주지들은 이러한 기질의 좋은 예증이다.

마그레브 전 지역에 흩어져 유목이나 반(半) 유목 혹은 정주 생활을 하던 토착민들이 현재처럼 거대한 ‘문화권’으로 분포된 것은 7세기 아랍·이슬람

도래 이후 서서히 일어난 일이다. 이슬람교와 아랍어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도 완전하게 아랍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아랍의 영향이 강하게 미치는 평원과 도시를 떠나 산지와 사막으로 후퇴하면서 현재와 같은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베르베르인의 다수가 아랍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 언어 사용자들이므로 표현과 생활에 문제가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를 ‘아랍어권에 둘러싸인 거대한 섬들’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집단 거주지들은 역사의 다양한 사건에 따라 번영과 쇠퇴의 시기를 번갈아 겪었다. 카라반 무역으로 번성, 무역의 퇴조, 금 수송 루트 변경, 해상 무역의 변창, 유럽의 식민 정복 등 여러 사건들에 따라 각 지역의 영향력이 커지거나 약화되기도 하였다. 현재 여러 국가의 집단 거주지에 분포하고 있는 이들이 20세기 후반부터 마그레브의 근원적 정체성은 아랍·이슬람 이전의 ‘베르베르’라고 주장하며 베르베르 언어 및 문화 부흥 혹은 재생운동을 벌이고 있다. 세계 베르베르인 대회, 최근에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한 베르베르 방송, 언어 보급 운동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이들의 활동은 속한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 베르베르 운동의 배후지로 이주와 이민의 문제도 중요해 보인다. 이주와 이민자들이 남아 있는 부족의 삶과 가족의 삶을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프랑스에만 6백만 명으로 추산되는 마그레브 이주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많은 수가 베르베르인들이며, 최근에 캐나다로 이주하는 마그레브인들 가운데 베르베르인의 비중이 높다. 이주·이민자들은 본국으로 송금을 하거나 퇴직 후 돌아와 저축한 자금들을 투자하여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면서 지역 공동체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일으키고 있다. 오늘날에는 프랑스와 유럽, 북미의 캐나다까지 가고 있지만 이들은 외국에서 번 돈을 자국으로 반입하여 투자로까지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다¹⁰⁾. 그러므로 정부 차

10) 연구팀의 현지인 인터뷰와 현지 관찰을 통해 알제리 카빌리의 경우 주로 관광업과 요식업에 이주민

표 3-2. 프랑스의 알제리 출신 이민자

(단위: 명)

| 연도 | 알제리 출신 이민자 | 베르베르인 이민자 |
|------|-------------------------------------|-----------|
| 1914 | 1만 3천 | 1만 |
| 1954 | 21만 2천 | 11만 |
| 1961 | 35만 | - |
| 1975 | 90만 | - |
| 1998 | 2백만 (75만 알제리 국적 1백35만 프랑스 국적) | 70만 |

자료: Berbères aujourd'hui(1998).

원에서도 이들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있다. 이들은 이민지역에서 자신들의 베르베르 공동체를 만들어 화합을 도모하고, 본국 내의 지역민들과 연대를 꾀하고 있다. 베르베르 사회의 연대에 이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베르베르인들이 초국가적으로 단합한 공동 연대의 대표적인 사례는 ‘세계 아마지그회의(Congrès Mondial Amazigh)’이다. 이 대회는 베르베르인들의 결속과 단합을 위해서 결성된 것으로, 북아프리카지역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3년마다 총회를 개최하고 있는 이 대회의 주요 목표는 베르베르의 언어, 사회, 문화, 인권 등의 옹호와 향상 촉진이다. 이와 같은 활동은 국제적인 연대를 필수로 하기 때문에 유엔이나 유럽연합, 아프리카연합 등과의 연계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켜가고 있다. 1995년 북아프리카와 아메리카에서 온 베르베르인들이 모여 프랑스의 생 롬 드 돌랑에서 처음으로 구상하여 1997년 카나리아 군도에서 1회 총회가 개최되었다. 2005년 모로코 나도르, 2008년 메크네스의 5회 개최에 이어 2011년 9월 30일~10월 2일 사이 튀니지 제르바에서 6회 대회가 개최되었다.

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반면, 오레지지역의 경우 귀향 이주민들이 주로 건설업에 투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범베르베르주의를 제창하는 기구는 활성화되고 있지만, 초기 창단 멤버들 상당수가 사망하고 있다. 가장 최근, 즉 2011년 11월 10일 범베르베르주의와 민족주의의 가장 열렬한 투쟁가였던 티지 라셰드(Tizi Rached)가 사망함에 따라 내부 구성과 투쟁방식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어떻게 활동하고 영역을 넓혀갈지 주목해야 한다.

제4장

베르베르인과 아랍인의 공존 · 대립의 역사

1. 마그레브의 아랍화: 아랍인의 침공과 이주

마그레브를 침공했던 외부 세력 가운데 가장 지속적이고 강한 영향을 남겼던 것은 종교를 앞세운 아랍인들이었다. 이슬람교 포교를 표방했던 아랍의 침공은 7세기와 11세기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베르베르인들은 이전 정복자인 비잔틴제국의 기독교보다 이슬람교가 ‘단순하고 관용적’이라고 생각하여 다수가 이슬람교로 개종하였다. 그러므로 베르베르인의 아랍화는 이러한 종교적 신앙에 의거한 자발적인 것이었다. 아랍어는 무슬림 신앙을 담고 있는 신성한 언어이며 종교예식을 거행하고 쿠란을 암송하는 것은 곧 신앙의 실천이었으므로 베르베르인들에게 이러한 아랍어를 배우려는 의지를 촉발하였다.

이러한 신앙심 외에도 사회·정치적 요인이 베르베르인들의 아랍화에 영향을 미쳤다. 마그레브지역이 속한 수니파 이슬람의 종교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언자 무함마드 가문(적어도 그렇다고 주장하는) 출신이어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 조건이다. 다시 말해서 이슬람 세계의 권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랍인이라는 조건이 필수적인 것이다. 베르베르인들이 무슬람이 되고 아랍어를 배우는 첫 단계를 거쳐 부족을 떠나 도시 계층에 진입하여 자신을 예언자 가문의 일원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사회적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정치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근원을 부정하는 일이 생기기 된 것이다. 아랍화와 이슬람으로의 개종은 하나의 사회적 성공 수단이 되어갔고, 아랍어를 익히고 그 문화를 수용한 일부 베르베르인들은 자발적으로 아랍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며 나머지 다수는 베르베르어와 베르베르의 고유한 사회조직 및 문화를 간직해왔다.

베르베르인들은 이전의 외부 침략 세력들에 대해서처럼 아랍의 침입에 대해서도 ‘수용’과 동시에 ‘저항’이라는 모순된 자세를 견지하였다. 아랍의 1차 침공 시 아랍인 군사는 약 1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 베르베르인들보다 전투력은 우수했을지언정 수적으로 압도했던 것은 아니었다. 중무장에 전투 준비를 갖추고 이동했던 아랍인들은 베르베르인들의 저항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두 집단 간의 크고 작은 전투가 640년에서 741년까지 약 1세기 동안 마그레브 전역에서 계속되었다. 이들은 베르베르인들을 어떤 지역에서는 동등하게, 어떤 지역에서는 피정복민으로 대우하여 많은 반발을 불렀다. 모로코의 바르그와티(Barghwatis) 부족이나 북부 고마라(Ghomara) 부족연맹체의 저항이 대표적인 일이었다.

11세기 마그레브를 정복한 바누 힐랄의 이집트 원정대는 약 4만 명의 병력이었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Monographie de l'Aurès 1904). 이들의 침공에 대하여 알제리 오레스 지방 등 여러 지역에서 강한 반발이 있었지만 평정되었고, 이집트 원정대는 서쪽으로 진군하면서 승리를 거듭하였다. 이들은 모로코 동부 고원지대, 하이 아틀라스와 안티 아틀라스 가장자리 사막을

누비며 더욱 강성해져서 대서양 연안 평원과 베르베르인들의 주요 집단 거주지 사이까지 침투하였다. 이후 알모라비드와 알모하드 왕조가 베르베르 부족들을 정복하고 분산시키면서 해안과 평원지역이 이람화되었다. 다른 부족들도 연이어 이람화되었으며, 정복군이 지역을 옮길 때마다 이람군에 동행하여 이주한 이람인들이 정착하였다. 페스와 말라케슈 인근 고원과 산지가 이들이 정착했던 대표적인 곳이다. 이런 영향으로 베르베르인들은 서부 사하라와 현재의 모리타니로 더 깊숙이 후퇴하였다.

베르베르인들과 이람인들은 초기 이 같은 상호 마찰이 많았으나 큰 희생 없이 공존하였으며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역사적으로 크게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확대된 적이 거의 없었다. 무엇보다도 종교적 동화가 이에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람어화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람 세계의 일원인 오스만튀르크의 침공 이후에도 이러한 관계는 유지되었다. 이같은 점진적 이람화 과정에서 마그레브 전 지역을 점유했던 베르베르인들은 생활 터전이 점점 축소되면서 마치 섬처럼 고립되었다.

이와 같이 베르베르인들이 산지를 중심으로 집단 주거지를 형성하며 마치 섬처럼 상호 고립된 이유를 설명하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형적 요인이다(Chaker 1998, pp. 17-20). 앞에서 언급했듯이 마그레브는 지리적으로 고산지대와 고원지대 및 남쪽 사막이 시작하기 전 평원들로 나뉜다. 농업에 종사하는 고산지대 부락은 혈연보다는 경제적·지형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이며, 계속 이동하는 유목지역은 혈연적인 집단이다. 고산지대는 공격하기 어렵다는 지형적 요인도 있지만 인구밀도가 높고, 사회·경제적으로 땅에 밀착해 외부의 침투가 어렵다. 반면에 유목지역은 외부의 침투가 쉬운데, 혼인과 같은 인위적 연합을 통하여 새로운 연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유목 베르베르인들의 경우 이람인들과 유사한 베두인적 생활방식을 영위하고 있어 이람인들과의 인종적 결합이 보다 수월했다. 베르베르인들이 많이 분포한 곳이 주로 아틀라스 산지인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2. 베르베르인과 아랍인 대립의 이분 구도

마그레브는 19세기 초반부터 지중해 북단 유럽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기 시작하였다. 20세기 이탈리아의 침공을 받았던 리비아를 제외한 4개국은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830년 프랑스의 침공을 받고 식민지화된 알제리는 132년의 식민통치 기간을 거치며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1962년 독립하였으며, 튀니지는 1881년, 모로코는 1912년 보호령이 되었다가 1956년 독립하였다.

식민통치 초기 프랑스는 마그레브지역을 아랍 국가로 간주하고 아랍 사무소를 설치하여 통치했으며, 투자 등 상업활동에서만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도 아랍어를 사용하였다. 알제리에 파견한 행정관들도 아랍어 구사자들이었다. 그러나 알제리는 곧 식민 정복에 강하게 저항했으며, 프랑스는 1871년 대규모 봉기로 타격을 입었던 알제리 북부 산악의 카빌리지역을 주목하게 되었다. 카빌리인들이 전통적으로 중앙권력에 저항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여 식민지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을 고안하였다. 정주민과 유목민은 본질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라는 신화를 만든 것이다.

평원의 주민은 아랍인이며 산지의 주민은 베르베르인이라는 등식을 설정하여 아랍인의 억압을 받는 베르베르인을 해방해야 한다는 논리가 프랑스가 실시한 분열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아랍인들이 평원에 사는 베르베르인들을 추방하여 정주민과 유목민 간의 분쟁이 시작되었으며, 프랑스의 식민지배는 베르베르 정주민들이 평원을 다시 차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프랑스 학자들의 주장이었다. 베르베르인과 아랍인의 이분 구도를 이론화하고 공식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프랑스는 카빌리 주민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프랑스어 교사로 육성하는 등 엘리트화하고 일종의 식민통치의 전진기지로 활용하였다. 카빌리인들은 켈트족의 후예로 푸른 눈의 백인이라는 신화는 이 시기 프랑스 이론

가들이 주장했던 것이다. 독립 후 국가 건설을 위해 지식인이 필요했던 알제리에 카빌리 출신자들이 다수 기용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카빌리가 프랑스 및 프랑스어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사상적,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에 참가한 것도 카빌리인들이라는 점에서 프랑스 식민정책의 결과는 역설적이다.

모로코에서 실시된 프랑스의 분열정책은 ‘다히르 베르베르(Dahir Berbère)’였다. 일단의 프랑스 지식인들이 고안하여 모로코 술탄으로 하여금 1930년 5월 16일 서명하게 한 법령으로, 북아프리카에서 이슬람교와 이람어를 일소하고 기독교와 프랑스어를 정착시키기 위한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 근원은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카빌리를 기독교화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카빌리의 민족주의를 촉발시켜 원래의 목표가 실패했다는 자각에서 비롯되었다. 베르베르인들의 자치를 법률적으로 보존한다는 명분으로 이슬람 법이 아니라 베르베르 전통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권을 프랑스 법에 이관한다는 것이 요지였다. 그러나 아랍의 억압으로부터 베르베르인을 해방한다는 목표를 표방하면서 실제로 베르베르인의 정체성 인정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베르베르인들을 더욱 주변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후 모로코 민족주의의 대규모 저항을 유발하고 독립투쟁 집단 중에서도 과격한 민족주의자들이 태동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프랑스 통치 말기는 베르베르인들이 점차 정체성과 역사의식을 갖게 된 시기였다. 베르베르 엘리트들을 각성하게 한 것은 프랑스인들의 연구로 베르베르인들에게 지적이고 논쟁적인 도구를 갖추게 해주었다. 베르베르인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이람·이슬람적 정체성보다 근원적이고 진정한 것이라는 역사의식을 자각하기 시작하였으며, ‘베르베르 원시 민주주의’와 같은 문화적 재발견을 하게 되었다. 베르베르적 정체성 규정에서 언어가 가장 중요한 참조점이자 패러다임이 된 것은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체성 의식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알제리 카빌리 지방이었다. 프랑스 학교가 처음으로 설립되었으며, 프랑스화된 엘리트가 가장 집중적으로 육성되었던 지역이다. 교육 기간이 긴 만큼 교육받은 인구가 많았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사와 같은 지식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 예컨대 목수까지 구전으로 전해진 시를 적어 보존할 정도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여성들의 교육도 알제리 그 어느 지역보다 먼저 시작되었다. 프랑스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프랑스인 교사의 다수를 차지했던 카빌리 지방 엘리트들은 초기 베르베르 연구자들이 되어 프랑스인들과 함께 베르베르어 문법을 정리하고 이론화하였으며, 구전문학의 기록과 보존, 베르베르어 사전 편찬 등을 위해 노력하였다. 높은 교육 수준과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축적된 자료들이 카빌리지역의 베르베르 의식화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했던 요인이었다.

3. 탈식민과 통합의 이념: 아랍적 정체성

모로코에서는 1930년경 식민통치에 대한 저항이 아랍화를 촉발하고 확산한 기제가 되었다. 독립주의자들은 이슬람 살라피 사상을 도입하여 국민을 교육하고자 하였다. 애국심의 각성과 신앙심이 겹쳐지면서 아랍어를 배우고자 하는 국민의 의지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정치적 이유 외에도 산지의 베르베르인들이 평원과 도시로 이주하는 농촌 이탈현상으로 중간 규모의 부족들이 아랍어화되었다. 모로코 학생들의 이집트 유학 또한 상층계급 자제들을 프랑스어와 아랍어로 이중언어 교육을 시키면서 아랍어화와 이슬람주의를 더욱 확산시켰다. 1947년 이후에는 아랍어 교육시간이 급격하게 늘었고 점차 지방으로 확산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도시지역에 제한되어 3개 아틀라스 산맥 지역은 프랑스 통치기간 동안이나 그 후에도 소외되어 있었다. 현

재 이 지역이 베르베르 단일어 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알제리의 경우는 독립운동 단체와 지도자들이 아랍회의 미친 영향이 컸다. 알제리의 첫 독립운동 단체 1930년대 파리에서 결성된 ‘북아프리카의 별’이다. 이 단체의 지도자로 지명된 하즈 메살리와 독립 이후 정권을 잡은 지도자들이 아랍계열이었다는 점이 알제리가 아랍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것이다. 하즈 메살리는 ‘데르가와’ 교단에 속해 있어 아랍 이슬람주의에 접근하기 쉬웠으며, 범아랍주의 지도자였던 셰킵 아르슬란과 만난 후 1936년 체포령을 피해 제네바의 그의 집에 피신하게 되면서 이념적 입장을 굳히게 되었다. 1962년 독립 당시 군 총수로 대통령이 되었던 후아리 부메디엔(Houari Boumediene) 역시 이슬람 가문 출신으로 어린 시절 쿠란학 교를 다녔으며, 튀니지의 지투나와 키이로의 엘-아즈하르에서 수학하였다. 부메디엔은 독립 후 실질적인 아랍 이슬람화 정책을 주도하고 장기간 펼쳤는데, 이는 그의 성장과정이나 수학과정과 무관치 않다. 또한 이흐메드 벤벨라(Ahmed Ben Bella) 대통령도 알제리의 아랍화를 주장하였다. 프랑스에 대항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알제리 독립군 ‘인민해방전선’의 지도부가 분열하고 아반 람단(Abane Ramdane)과 같은 카빌리 출신자들이 제거되었던 것도 아랍적 정체성 표방과 관련이 있다. 독립전쟁 시기 알제리인들을 단합하게 했던 슬로건은 “나의 조국은 알제리, 나의 종교는 이슬람, 나의 언어는 아랍어이다”라는 콩스탕틴 출신 아랍 개혁운동 지도자 압델하미드 벤 바디스의 유명한 말로 이 슬로건은 당시 알제리의 정치적 이념을 압축하고 있다.

마그레브 국가들은 서로 시기와 방법은 달랐지만 20세기 후반 각기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게 되었다. 1956년 타협적으로 진행된 모로코와 튀니지의 독립과 달리 알제리는 “20세기의 가장 참혹했던 식민 해방전쟁”으로 회자되는 ‘혁명’을 거쳐 독립하였다. 독립 과정이 치열했던 만큼 알제리의 건국 역시 격변의 역사였다고 규정할 수 있다.

각국의 독립 후 마그레브의 신생 정부들은 서로 상황은 달랐지만 이들이

표방하는 국가적 모델은 같았다. 그것은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이 일체화된 마슈렉의 왕국들이나 언어·문화적으로 통일된 프랑스의 중앙집권적 근대국가였다. 이러한 근대국가 구축을 위하여 동질화된 언어와 문화가 필수적인 조건으로 대두되었다. 이 조건은 독립 이후 식민 잔재를 청산하고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했다. 이러한 조건으로 마그레브 국가들이 채택한 것이 아랍·이슬람주의였다.

모로코가 프랑스 보호령으로부터 해방되면서 표방한 이념은 단일화, 보편화, 아랍화, 모로코화였으며 이러한 이념이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였다. 무슬림의 신앙심과 아랍인으로서의 소속감이 하나로 묶여 ‘아랍 마그레브’ 혹은 ‘아랍주의와 이슬람’과 같은 이념적 구호에서도 나타나듯이 ‘아랍’이라는 단어는 적어도 모로코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요소로 각인되었다.

리비아도 카다피가 집권하면서 범아랍주의 대열에 동참하였으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아랍주의 이후에는 마그레브연맹을 창설하는 데 주도권을 잡고자 하였다. 아랍·이슬람주의를 통해 자신의 독재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알제리는 해방전쟁 기간 동안 내세웠던 아랍·이슬람적 정체성을 더욱 강력하게 내세웠으며, 이를 사회 전 분야 정책에 반영하였다. 독립 이후 제정한 각국의 헌법이나 국민헌장 등은 이러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독립 직후인 1962년 발표된 ‘알제 헌장’은 “식민지배의 파괴에 견고한 방어물을 구성했던 것은 알제리의 아랍·이슬람적 본질이었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이어서 1976년의 ‘국민헌장’에서도 “알제리 국민은 분리할 수 없는 요소로 조국 아랍에 헌신한다”고 명시하였다. 알제리 독립전쟁을 주도하였으며, 독립 후 유일 정당으로 정부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인민해방전선’의 중앙위원회는 1981년 이러한 입장을 더욱 강화하였다. “국가의 문화는 집단적 경험, 우리의 무슬림 종교, 우리의 아랍어, 아랍·이슬람 문명에 대한 우리의 소속, 우리의 민간 문화유산을 종합한 것이다.” 이러한 아랍·이슬람주의를 중심에 두고자 하는 알제리 독립정부의 의지는 1976년의 헌법, 1989

년과 1996년의 개정 헌법을 통하여 간결하게 공식화되었다. 1976년 헌법은 2조와 3조에서 각각 “이슬람은 국가의 종교이다”, “아랍어는 국가의 공식어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1989년 개정 헌법의 2조와 3조도 같은 문장으로 재확인하고 있고, 1996년 개정 헌법도 이 점에서는 동일하다.

알제리 정부는 이러한 국가 단합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주 강력한 정책들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가 교육정책이었다. 식민지배 기간 동안 프랑스 식민정부는 기존의 아랍어 교육기관들을 체계적으로 폐쇄하여 독립 당시 알제리는 전 국민의 96%가 문맹이었다. 독립정부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국가 예산의 11%를 할애하며 강력한 문맹 퇴치 및 교육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독립 당시 2,500명에 불과했던 대학생 수가 2008~09년도에는 110만 명으로 증가하여 45년간 약 440배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알제리가 실시하고자 했던 아랍어화 정책은 대단히 과격한 것이어서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였다.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같이 받았던 이웃 두 국가 모로코나 튀니지처럼 과도기적 상황을 인정하고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기 보다는 프랑스어를 일소하고 전면적 아랍어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독립 당시 소수의 지식인들은 대부분 프랑스어로 교육받은 사람들이어서 아랍어로 교육할 수 있는 교사가 없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알제리 정부는 교사들을 3주간 아랍어 연수 후에 교육에 투입하거나 표준 아랍어 지역인 이집트, 시리아, 팔레스타인 등지로부터 교사들을 모집해서 투입하였다. 하지만 이는 교육 전반에 많은 문제를 유발하였다. 표준 아랍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은 많은 알제리 아동들이 낙제하거나 학업을 중도에서 포기하였고 그 후 유증은 아직도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알제리와 모로코 정부가 표방했던 아랍·이슬람화 정책은 베르베르적 정체성의 부정이라는 불분명한 목표와 연동되었다. 베르베르인들도 이슬람교도이며 아랍어를 구사하는 비율이 높은 이중언어자들이므로 아랍적 정체성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음에도, 알제리정부가나 모로코정부는 공식적으로 베르베르적 정체성과 언어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모로코 일각에서는 ‘다히르 베르베르’의 원죄를 씻기 위하여 신속하고 무조건적으로 아랍화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도 생겼다. 알제리 헌법의 경우는 ‘베르베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러나 알제리 독립전쟁에 적극 가담하였던 베르베르인들에게 식민통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은 동시에 베르베르인들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을 지닌 베르베르인들의 정체성과 언어 복원에 대한 의지는 정부의 국가적, 민족적 기획과 충돌이 불가피하였다.

알제리정부의 주류를 구성하는 아랍인들은 베르베르적 정체성 주장이 독립 후 필요한 국가 단합을 저해하며, 분열 조장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였다. ‘베르베르란 프랑스와 백인 사제들의 낱조’하는 것이 독립정부 민족주의자들의 기본적 생각이었다(Chaker 1998, p. 145). 이슬람적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카빌리인들은 비난을 받았으며 결국 갈등이 빚어지게 되었다. 베르베르어와 문화는 이론적 연구나 교육의 차원에서도 금지하는 정책이 실시되었으며, 아랍인(어권)/베르베르인(어권)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는 프랑스로부터 독립 이후 더욱 날카롭게 제기되어 다음 장에서 살펴보듯 극단적 대치 상태에 돌입하였으며, ‘베르베르의 봄’과 같은 폭력 사태는 이러한 대립이 수면 위로 떠오른 중요한 사건이었다.

최근 민주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리비아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1969년 집권한 카다피는 리비아와 이집트를 통합하고자 나세르에게 접근했으며, 몇 차례의 시도가 실패하자 마그레브지역에 ‘사하라 합중국’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이 역시 실패했지만 그의 이러한 구상의 근간은 아랍·이슬람주의였다. 그러므로 리비아의 제벨 네푸사 산악지에 거주하던 베르베르인들은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억압을 받았다. 예컨대 태어난 아기에게 베르베르식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 출생신고를 받지 않은 등의 사례이다. 카다피 정권 축출은

리비아의 베르베르인들에게 민주화와 아울러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여, 베르베르인들은 카다피 축출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것이다.

베르베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는 같은 입장이었지만 알제리, 모로코 두 나라의 대응방식에는 약간 차이가 있었다. 알제리는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대학에서 연구하거나 강의하는 것도 금지하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모로코는 장려하지는 않았지만 학문적 접근이나 민간활동의 차원에서는 관용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런 차이는 국가 성립기에 국가적 정체성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알제리는 국가 성립기에 이람 이슬람주의와 같은 이념적 근간이 중요했지만, 모로코에서는 군주제의 정당성 확보가 더욱 중요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에서 베르베르 비이성적이고 부정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베르베르인의 주거지가 산지는 국한되었고 도시에서도 주류 사회를 구성하지 못하였다.

4. 베르베르인들의 요구: 베르베리즘(berberism)¹¹⁾

베르베르 문화 운동가들은 그들이 마그레브지역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 하던 시기, 특히 이람·이슬람화 이전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진정한 마그레브인은 베르베르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가사회를 동질화하는 이념으로 보다 근원적인 마그레브 정체성인 베르베르성을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람어와 그 문화도 이슬람 종교를 핑계로 마그레브지역을 침공한 점령국의 언어와 문화라고 규정하며, 이람을 로마, 터키, 프랑스와 같은 침략자로 본다. 또한 프랑스와 같은 식민정부도 마그레브지역을 이람 지

11) 카빌리 출신 베르베르 운동의 이론가인 모크란 셰림(Mokrane Chemim) 주장의 많은 부분 요약한 것이다. 그는 베르베르 운동으로 수차례 투옥되었으며 베르베르 운동으로 탄압받은 사람들을 후원하는 지하조직의 집지 (4월(Avril))의 창간자이다.

역으로 분류하여 이람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베르베르인들을 억압했다고 생각하며, 이람·이슬람주의를 식민지배에 대한 투쟁의 근거로 필요한 최소한의 이념적 장치라고 규정한다. 또 이람·이슬람주의는 라틴 기독교에 대항하는 이념일 뿐이며, 지역의 사회문화적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로마화나 프랑스화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독립 후 가속화된 이람화 속에서 지역 정체성의 핵심인 베르베르적 정체성과 언어는 부정되고 무시되었고, 베르베르인 입장에서 이것은 중동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자행하는 인종 말살과도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베르베르인들은 또한 정부의 이람어화 정책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무슬림으로서 종교적 실천에는 이람어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아랍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의 무슬림 가운데 아랍인은 단지 3,000만 명 뿐이라는 것이 그 한 배경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이란, 터키 국민은 인종적으로 아랍인들이 아니다. 베르베르 문화운동가들에 따르면 이람어란 생물학적으로 성립되는 인종이 아니라 단지 이람어 사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종교와도 무관하다. 마그레브지역민은 모두 이람의 영향을 받은 베르베르인들로 베르베르어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과 베르베르어를 상실하고 이람어만 사용하는 사람의 두 부류가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 공무원을 선발 기준으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이람어를 법적으로 정하는 등 정부가 이람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사회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베르베르어를 탄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은 베르베르 문화운동가들의 주장을 요약한 것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 베르베르적 정체성 복원을 통하여 국가의 현대화를 실현하자는 주장은 필연적으로 이람 이슬람화 정책이라는 국가적 기획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베르베르인의 마그레브’를 주장하는 베르베르주의 운동가들은 자국 내에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문화의 인정을 위한 병행하여 마그레브 전체에 분포

한 베르베르인들의 단합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가시적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이 베르베르어 통합과 문자화이다. 최근에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북미권에서 SNS를 통해 이러한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문자가 없었던 베르베르어는 집단 거주지를 중심으로 거의 10세기 동안 외부나 지역 부족끼리 특별한 교류 없이 발전해왔다. 그 결과 일상생활에서 베르베르어를 독점적, 고지적으로 사용하는 대단위 지역의 방언들 간에 여러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 언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 여러 베르베르어 방언을 참조하여 현대생활에 맞는 신조어 체계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알제리 카빌리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1970년대 중반 제작된 베르베르어 기술어휘집 『아마왈(Amawal)』은 카빌리어 외에도 투아레그, 슬리호의 어휘를 대량으로 발굴한 결과였다. 1980년대에도 같은 방식으로 여러 방언을 참조하여 수학, 지리, 건축, 컴퓨터 관련 신조어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문자 자료 생산이나 신조어 발굴 등의 성과가 리프, 음자브, 슬리호 등으로 확산되었다. 연대의식을 계속 확대하여 초국가적인 지적·학문적 공간을 구성하려고 노력 중인 것이다.

이러한 베르베르어 표준화 작업에서 가장 주목하는 단어가 베르베르인 자신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위에서 언급한 마그레브의 원주민을 뜻하는 ‘베르베르’는 외부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그러나 베르베르인들은 현재 자신들을 ‘아마지그’라고 칭하며, 자신들의 언어를 ‘타마지그트’라고 부른다. 이 두 어휘는 모로코의 베르베르어에서 유래된 것이다. 1945년 이전에는 카빌리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어휘가 현재 카빌리뿐 아니라 기타 지역민들 사이에서, 그리고 학문적 담론에서도 널리 통용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신조어들도 여러 부족들의 언어에서 발굴되고 있으며, 그 사용권역도 카빌리에서 모로코나 투아레그로 넓어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각기 달랐던 음의 표기방식이 안정적으로 사용되면서

방언들의 발음 차이가 줄어들게 되었으며, 베르베르인들이 쉽게 해독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언어학적인 면에서 상당한 학술적 가치까지 도출해낸 것이다. 또한 베르베르인들의 정체성이 견고해지고 결속력도 강화될 수 있게 되었다.

베르베르어를 문자화하려는 노력도 범베르베르주의의 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베르베르어가 무시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문자가 없다는 사실이라는 각각에서 출발한 문자화 노력은 이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카빌리지역에서 보듯이 문자화는 베르베르 의식 각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인 사제들이 지역어를 라틴어로 표기하면서 시작된 베르베르어 문자는 카빌리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언어로 글쓰기를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였으며, 구전으로 전해온 전통 구비문학을 문자화하여 보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하였다. 문법의 정리나 이론화도 이러한 문자화에서 시작되었다. 최근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베르베르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적어도 이런 문자화 노력 덕분이다.

그러나 베르베르어의 문자화는 현재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다. 카빌리지역을 중심으로 라틴어 문자체계를 도입하여 이미 상당한 성과가 축적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Chaker 1998, p. 90).

- 가. 문학작품을 베르베르어로 번역
- 나. 베르베르어 창작 문학작품 출판(시집, 희곡 등)
- 다. 역사 및 과학 분야 저작 출판
- 라. 베르베르어 사전(전문용어를 비롯한 일반 여행 가이드북)
- 마. 베르베르어 전용 TV 및 라디오 방송
- 바. 베르베르어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음악, 음식, 예술)

다른 한편에서는 고대 베르베르 문자였던 티피나그를 다시 사용하기는 주장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최소한 기원전 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베르베르어 표기체계야말로 베르베르 고유의 문자로 베르베르어의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존재성을 확인해주는 것이며, 이를 문자화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주변과의 차별성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이다. 알제리정부는 이러한 시도에 대하여 모든 베르베르어 교육의 선결조건으로 아랍어 문자 채택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카빌리의 경우는 아랍어 표기보다 라틴어 표기에 의한 베르베르어 교육과 출판, 표기를 선호하는 편인데, 이는 이 지역의 역사성과 지역성에 따른 것이다. 공식 문화 속에 최대한 편입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를 주도하는 것은 학생과 농민 계층으로 언어학자들은 대단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티피나그 문자의 사용이 베르베르어 교육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모로코이다. 교육 전 과정에서 베르베르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왕립 아마지그문화원’에서 교과서와 교구들을 생산하고 있다. 현지 조사 과정에서 알제리에서 베르베르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곳은 카빌리지역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인접한 오레스에서는 베르베르어 교육의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약 10년 전부터 주당 두 시간씩 지원자에 한하여 초중등 각 수준에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대학 학·석사 과정도 베르베르어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

베르베르어를 교육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마그레브지역에서 아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여러 방언 중에서 어떤 문자와 어느 지역의 방언을 채택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도입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베르베르인 결속의 가장 중요한 도구인 언어가 내부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알제리에서 ‘교육 내 아마지그어(베르베르어) 도입 국립 연구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주제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각 주제에 대한 베르베르 운동가들의 주장을 동시에 함께 제시한다.

12) 이 지역에서는 2004년 이후 베르베르어를 대학수능시험에 포함시키고 있다.

가. 교육에서 아마지그어의 위상

- 언어만을 교육할 것인가? 전체 교육내용을 아마지그어로 교육할 것인가?
(베르베르 운동 측 주장) 아마지그어는 현재 어휘 차원에서 빈약함으로 전체 교육을 담당할 수 없다. 우선적으로 언어만을 교육한 뒤에 학문적, 기술적 어휘를 개발하여 전체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 어떤 단계에서 도입할 것인가? 교육 공인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시험제나 학위증으로 할 것인가)?
- 베르베르어 지역에 제한할 것인가? 전국에서 할 것인가?

베르베르어 지역에 제한할 경우 즉각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수용력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 간 언어적 갈등을 더욱 심화할 수 있다. 전국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문화적 동질성과 사회적 화합의 가능성은 높일 수 있지만 도입 단계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베르베르 운동 측 주장) 아랍어와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국민의 진정한 동질성을 확보하는 데 아랍어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초기에는 초등 및 중등 9년 간 실시하여 언어 수준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주요 거점 대학들(알제, 콩스탕틴, 안나바, 오랑)에 아마지그어 및 관련 문학 연구소가 설립되어야 하며, 바트나 대학에도 아마지그어 문화학과가 개설되어야 한다. 아마지그 역사가 교육과정 속에 도입되어야 한다.

- 의무제로 할 것인가, 혹은 선택제로 할 것인가?
선택제인 경우 반발을 피할 수 있으나 학교들 간의 심리적, 행정적 갈등

을 부를 수 있다. 의무제는 선택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갈등은 피할 수 있으나 부수적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나. 베르베르어 가운데 어떤 언어를 선택할 것인가?

- 지역어들인가, 혹은 지역어들 간의 공통된 모어(langue-mère)인가?

지역어들을 교육한다면 살아있는 언어를 교육하는 것이지만 서로 다른 지역어를 고착시켜 차이를 더욱 크게 만들 수 있다. 공통부분을 교육할 경우 지역어들을 표준화하고 통일할 수 있으나 이럴 경우 일상생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거의 새로운 언어를 교육하게 된다.

(베르베르 운동 측 주장) 지역어가 아니라 공통어를 교육해야 한다. 대단위 지역 외에도 소단위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다. 아랍어, 라틴어, 티피나그 가운데 어떤 문자체계를 도입할 것인가?

- 아랍어: 교육이 아랍어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문자체계가 동일하게 되며, 아마지그어가 같은 언어군에 속하므로 다른 문자체계보다 익히기 쉽다. 아마지그어 교육을 반대하는 아랍어 사용자들로부터 협력을 받기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알제리 고등교육부, 문화부, FLN 문화위원회 등은 베르베르어 교육의 전제조건으로 아랍어 문자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라틴어(국제표기법): 전 세계적 사용자들을 가지고 있는 문자이며, 이미 많은 출판이 이루어져 있고,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SNS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아랍어 표기보다 범베르베르주의를 주장하는

측을 포괄할 수 있고, 마그레브는 물론 외국에 거주하는 베르베르인 들까지 포괄할 수 있다.

- 티피나그: 이미지그어 고유의 문자체계라는 발생적 정체성을 내세울 수 있다. 주변 환경과 명백하게 차별화하여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두 개의 문자체계가 사용되고 있어 문화적, 행정적, 경제적 차원에서 언어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베르베르 운동 측 주장) 아랍어는 현재 프랑스어나 영어와 견주어 어휘가 대단히 부족하다. 프랑스어에 비하여 약 1만 개, 영어에 비하여 약 1만 5,000개 정도의 어휘가 적다. 그럼에도 아랍어 문자로 국제표기법을 선택하지는 주장이 아직도 제기되고 있다. 터키는 국제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아랍어 표기 방식은 이미지그어의 발음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는 난점이 있다. 모음 표기의 어려움도 큰 문제이다.

- 국제표기법: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으며, 음성적 표기에 어려움이 없다.
- 티피나그: 티피나그는 리비아-페니키아에서 유래되었다는 가설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누미디아인들이 카르타고인들에게 자음만을 빌려왔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 티피나그는 어떤 셈족 문자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셈족 문자와 달리 처음에 모음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문자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거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원형으로 등 여러 방향을 취하고 있다.

투아레그족이 사용하는 문자는 이점보다는 난점이 더 많다. 적어도 여덟 개 종류의 알파벳이 있고, 모음과 구두점 그리고 띄어쓰기가 없다. 또한 그간 티피나그로 쓰인 생산물이 드물다는 것이다. 더구나 알제리 내에서 취약한

투어로그 족의 위상은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라. 그 외 시행 차원의 시간 분배, 교과서, 교사 육성 등의 문제

교육도구 개발, 문법 정리 등의 현대화뿐 아니라 교육 개시 시점, 각 교육 단계에서 실시 방식, 정부의 감독 등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5. 극단적 대립의 예: 알제리

독립 후 알제리의 역대 정부는 베르베르인들의 요구에 대하여 위협하거나 억압했으며, 지역 정부를 통하여 여러 이념적, 문화적 통제를 반복하였다. 베르베르인들이 말하는 탄압의 구체적인 사례들은 수없이 많지만, 여기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행한 일상의 베르베르어 사용 금지 혹은 억압에 대한 몇몇 사례들을 살펴본다.

- 1) 베르베르지역을 도시지역 중심으로 행정적으로 재편하였다.
- 2) 군대에서 베르베르어 사용을 금지하였다.
- 3) 학교 교육에서 베르베르어 사용을 금지하였다. 1971년에는 아랍어 시험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통과하지 못하면 대학 졸업장을 받을 수 없었다.
- 4) 행정기관과 법정에서 베르베르어 사용을 금지하여, 베르베르어 단일 구사자들은 통역료를 지불하고 재판을 받아야 했다.
- 5) 대중매체인 신문, 방송에서 아랍어와 프랑스어만 사용하였다.
- 6) 카빌리 주변 지역을 ‘띠’ 모양의 타지 이주자들이 정착한 마을로 만들

었다.

7) 베르베르어 문자화를 이랍어 표기방식으로만 허용하였다.

독립 후 실행된 이랍·이슬람화 정책이 이랍적 정체성 강화와 프랑스어 문화 일소리는 명분으로 진행되었지만, 결국 소수문화인 베르베르어와 문화까지 억압하였다. 이러한 탄압으로 인하여 베르베르 문화운동은 점점 정치화하면서 모든 측면에서 정권이 표방하는 목표나 기획과 다른 양상을 취하게 되어 반체제적 성격으로까지 확산되었다.

표면상 독립 후에 더 극단적으로 표출되었지만, 알제리에서 베르베르주의는 이미 독립 이전부터 존재했다. 프랑스 식민지배를 통해 베르베르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서서히 드러냈으며, 이후 식민지배 과정에서 민족주의의 태동, 독립 이후 이랍 이슬람 정책에 의한 억압, 그리고 최근 들어 세계화의 변화 속에 지속적으로 변해왔다. 내부에서는 정체성 찾기 운동을 벌임과 동시에 국가권력과는 끊임없는 갈등 속에 자신들의 베르베르주의를 주창했던 것이다. 그와 동시에 억제 정책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대베르베르 정책 또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베르베르의 정체성 찾기 과정과 정부의 대베르베르 정책 실행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를 연대별로 도표화해보면 [표 4-1]과 같다.

표 4-1. 알제리 정부의 대베르베르 정책과 베르베르주의의 변화 과정

| 연도 | 내용 | 비고 |
|------|--|---------------------------|
| 1858 | 프랑스 식민지배 기간 동안 프랑스인 하노토(Hanoteau) 장군이 카빌리어 문법서를 최초로 출간하여 베르베르인들의 정체성을 자각시킴 | |
| 1926 | 파리에서 ENA(북아프리카의 별, Etoile Nord-Africaine) 결성. 알제리 최초의 민족주의 운동단체로 베르베르 정체성이 언급되면서 내부 갈등으로 확산됨 | ENA는 1937년 결성된 PPA의 전신이다. |

표 4-1. 계속

| 연도 | 내용 | 비고 |
|-------------|--|----------------------|
| 1938 | 아마르 이마슈(Amar Imache)가 ENA 내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알제리 민족운동에 대해 베르베르 정체성을 강조하며 문제 제기 | |
| 1948 ~ 1949 | PPA-MTLD(알제리민중당-민주 자유의 승리를 위한 운동, Parti du Peuple Algérien-Mouvement pour le Triomphe des Libertés Démocratiques) 내부에서 베르베르주의의 위기가 대두되고, 베르베르주의를 비판하는 운동가 위주로 민족주의 운동이 정해짐. 이들은 모든 사안은 아랍·이슬람적 가치에 따라 판단되고 결정되어야 한다고 봄 | |
| 1948 ~ 1950 |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한 PPA-MTLD 외해 | |
| 1954 | 알제리 독립전쟁이 시작되고, 베르베르성 강조 분위기 사라짐. 베르베르주의자들은 식민주의자들의 앞잡이나 반혁명주의자들로 인식되는 분위기였으며, 독립을 위해서는 아랍·이슬람적 의식으로 뭉쳐야 한다고 인식이 팽배함 | 민족 해방군이 주도 |
| 1962 | 독립정부는 베르베르의 중요성을 은폐시켰으며, 알제 대학교의 베르베르어 강좌 폐지. 베르베르 문화에 대한 감성이 카빌리를 위주로 알제리 사회 전반에 확산됨 | FLN (민족해방전선)이 주도 |
| 1963 | 카빌리에서 FFS(사회주의권력전선, Front des Forces Socialistes)가 주동한 군 봉기 발생. FFS는 오신 아이트-아메드(Hocine Ait-Ahmed)가 창설한 카빌리지역에 근거를 둔 반정부 정당. FFS는 군 봉기가 알제리 분리주의자들의 시도하고 몰아붙임 | |
| 1964 | “알제리 민족의 아랍·이슬람적 본질은 식민주의의 파괴에 맞서 견고한 방어벽을 구성했다” | 알제리 헌장 25조 |
| 1965 |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으며 혁명위원회가 구성됨. 혁명위원회는 베르베르 출신 위주로 구성되었지만 알제리는 아랍·이슬람적 가치를 더 추구했으며, 베르베르주의를 선전하는 활동은 억압받게 됨 | 후이리 부메디엔 대통령이 쿠데타 주도 |
| 1967 ~ 1969 | 베르베르 아카데미 ‘Agraw Imazighen’ 설립, 알제리인들의 의식 각성을 목표로 연구 이외에도 정치적 목적의 활동을 하게 됨 | 파리에서 창립 |
| 1970 | 베르베르 아카데미의 알제리 활동원들이 아미지그 언어와 문화 보호 및 개발, 증진을 위한 베르베르권력조직(Organisation des Forces Berbères) 결성 | |
| 1972 | 파리 8대학의 베르베르어 강좌 개설을 계기로 베르베르인들이 프랑스에서의 연구, 투쟁을 위한 결속력 강화 도모 | |

표 4-1. 계속

| 연도 | 내용 | 비고 |
|-----------|--|-------------------|
| 1973 | 베르베르 연구그룹 조성(베르베르어와 문화). 책임자로 므바렉 레잘라(M' Berek Redjala) 임명 | |
| 1974 | '폭탄 설치자' 사건으로 베르베르주의 행동자들의 검거와 유죄판결 | |
| 1974~1978 | 카빌리 출신 가수 아이트-멘겔레트(Ait-Menguellat) 등을 중심으로 베르베르어 노래가 베르베르 정체성에 대한 대중적 토대를 제공하고, 베르베르 문화에 대한 민족적, 국제적 신뢰를 강화시킴 | |
| 1976 | "알제리 민중은 그들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인 아랍민족공동체(Patrie arabe)에 결부되어 있다... 이슬람교와 아랍 문화는 보편적이면서 민족적인 틀이다" | 국민헌장 전문(Preamble) |
| 1976 | "아랍어는 국민 언어이며 공용어이다. 정부는 공적 분야에서 국민어 사용을 일반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1976년 헌법 제1장 3조 |
| 1978 | 베르베르 행동주의자들에게 가는 군용 화물이 시글리 콧(Cap Sigli)에서 검거되어 유죄판결받음 | |
| 1980 | 베르베르의 봄. 티지-우주와 알제 대학에서 몰루드 맘메리(Mouloud Mammeri) 강연 금지를 계기로 이슬람주의자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반정부 투쟁에 나서면서 언어의 독자성과 자치권 요구 | |
| 1984 | 알제리는 아랍·이슬람 국가임을 천명하고, 이슬람의 '사리아'에 근거한 국가 건설을 원칙으로 하는 가족법을 개정 | |
| 1985 | 알제리 인권 연맹(Ligue Algérienne des Droits de l'Homme) 사건으로 베르베르주의 행동대원들 검거 및 유죄판결 | |
| 1986 | '이슬람교의 출현은 하나의 총체적인 혁명이었는데, 방식은 인간적이었고 원칙은 보편적이었으며 표현은 아랍적이었다. 알제리 민중은 아랍 민중이며 이슬람 민중이다' | 개정 국민헌장 109항 |
| 1987 | 연합운동을 향한 단체 MCB(베르베르문화운동, Mouvement Culturel Berbère)를 결성하여 베르베르 언어와 문화를 수호하고자 함 | |
| 1989 | 다당제 도입. 베르베르주의에 기초한 정당 RCD(문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연합, Rassemblement pour la Culture et la Démocratie) 창당. 사이드 사디(Said Sadi) 주도로 FFS와 경쟁관계 돌입 | |
| 1989 | 베르베르주의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존 입장 불변 "아랍어는 국민어이자 공용어이다" | 헌법 제3조 |
| 1990 | MCB의 대규모 시위와 합법적인 지위 획득 | |
| 1994 | 베르베르 전 지역에서 대규모 동맹파업과 수업 거부. 제루알(Zeroual)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우리 모두는 아마지그인이다"라고 천명함 | |
| 1995 | 대통령 직속기관 '아마지그테 고등위원회' 창립과 타마지그트어를 점진적으로 교육하게 됨 | |

표 4-1. 계속

| 연도 | 내용 | 비고 |
|------|---|-------------------------|
| 1998 | 가수 루네스 마투브(Lounes Matoub)의 암살과 카빌지역 소요 사태 | |
| 2001 | 정부군에 의해 베르베르 고등학생 마시니사 퀘르마(Massinissa Guermah) 사망. 이후 정부군이 128명을 사살하고, 수천 명의 부상자 발생. 알제 시에서 1백만 명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와 소요가 조직적으로 전개됨 | |
| 2002 | 카빌지역위원회와 정부 간 첫 번째 협상 시작. 헌법에서 타마지그트어를 국가어로 인정함. | FLN과 RND가 총선에서 압승한 결과 |
| 2006 | 베르베르어 대학수능시험에 포함. 11개 윌리아(Wilaya)에서 선택적으로 실시 | El Watan 1996. 12.27 기사 |
| 2007 | 부테플리카 대통령: “알제리는 동양과 서양에 속하지 않고 알제리 역사 속에서 지속되어온 가장 중요한 인간의 고유 가치와 문화가 우선시되는 사회 건설을 추구한다” | 2007 국회 예산법 통과 연설 |
| 2008 | “타마지그트어 또한 국가 언어이다. 국가는 알제리 영토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언어들을 향상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 외에도 알제리가 이슬람 국가이며 마그레브, 아프리카 국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무엇보다 지중해 역사와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언급함 | 헌법 제1장 3조 |
| 2009 | 타마지그트 TV 채널 개국 | |
| 2010 | 1998년 ‘베르베르의 봄’을 유발했던 루네스 마투브의 암살자 10명 가운데 2명에 대하여 12년형 언도 | |
| 2011 | 세계아마지그트협회 창시자 알리 마메스(Ali Mamès) 사망 | |

알제리에서 대립의 양상은 ‘베르베르의 봄’과 같은 사건을 계기로 최근 공존의 양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베르베르의 봄’ 이후 가수나 작가 같은 문화계 종사자들, 지식인들, 일반 주민들, 특히 젊은 대학생들이 대거 합류하여 알제리 사회와 문화 담론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는데, 무엇보다 베르베르의 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인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독립 이후 아랍·이슬람 문화로만 정의된 알제리를 다른 차원에서 재조명할 수 있는 관점을 부여하였고, 이후 일련의 정부 조치들은 자칫 지역

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베르베르문제를 해결해가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민족주의를 통해 아랍·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려던 취지에서 벗어나 알제리 정부는 다문화적 정책을 폼으려고 한 것이다. [표 4-1]은 그런 사례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6. 전환점으로서의 2011. 7. 1: 모로코 헌법 개정

1990년 초반까지 베르베르 문화는 모로코의 ‘대중(민간)문화(culture populaire)’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여겨졌다. 모로코의 국가적 정체성에서 아랍적 요소가 절대적으로 강조되어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1980년대 이슬람 이념이 모로코에 확장되면서 결성된 청년 이슬람 단체들 또한 베르베르적 정체성에 적대적이었기에 알제리와는 상황이 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마지그 문화운동’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전개되었는데, 1980년 초 알리 사드키 아제쿠(Ali Sadki Azaykou) 투옥 사건은 그 한 예이다. 모로코에서 민간 아랍어를 말하고 학교에서는 고전 아랍어를 배우게 된 사람들 중 자신을 아랍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다. 베르베르어를 하지 못하고 자신을 아랍인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자신이 베르베르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놀라는 경우가 흔했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인 1990년대 베르베르적 정체성은 국가 문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 베르베르 운동에 청년층이 가담하며 더욱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대학 캠퍼스를 벗어나 지방의 문화운동으로까지 확산되었다. 2007년 국민들의 선거 거부는 이러한 변화에서 온 것이었다. 하지만 모로코정부는 아마지그어의 교육 실시와 아마지그어 TV 방송국 설치와 같은 소극적 조치만 취하였다. 2000년대 들어 인접한 알제리 베르베르 운동의 영향을 받은 모로코 베르베르인들은 아마지그

선언문(Manifeste Amazighe)을 통해 베르베르적 정체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들은 모로코는 베르베르 국가이고 따라서 베르베르인들에게 언어적·문화적 권리가 있다는 폭넓은 차원의 논의를 확대해갔다. 모로코의 베르베르 운동은 기존의 담론을 되풀이하며 “범아랍주의자들이 계속 부정한다면 이마지겐은 아랍이고자 하는 일체의 주장을 부정할 권리를 내세울 것이다”라는 극단적 주장을 하며 중앙정부와 대립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알제리와 달리 모로코는 20세기 내내 베르베르주의와 관련하여 극단적인 투쟁을 벌이지는 않았다. 극단적인 투쟁이 없었다는 사실이 베르베르어권 권리를 요구하는 주장이 없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모로코 또한 민족주의적 감정과 더불어 토착문화에 대한 자국이 식민시대부터 일기 시작했다. 특히 연구팀이 현지 조사를 한 리프(Rif)지역은 다른 베르베르어권 지역에 비해 자신들의 정체성에 강한 연대감을 표시했다. 그런 모습은 최근의 헌법 개정 과정을 통해서도 일련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표 4-2]에 정리하였다.

▮ 표 4-2. 모로코정부의 대베르베르 정책과 베르베르주의의 변화 과정 ▮

| 연도 | 내용 | 비고 |
|-----------|---|----|
| 1912 | 프랑스-스페인 페스에서 모로코의 보호령 조약 체결. 남부 모로코는 술탄이 지배하고 리프지역은 칼리파제하에서 통치받고 있었음 | |
| 1913 | 라바트 대학교 설립. 프랑스에 의해 베르베르어 강좌 개설 및 연구소 설립 | |
| 1921~1926 | 리프 전쟁 발발. 압델크림 알-카타비(Abdelkrim Al-Khattabi) 주도 모 스페인에 맞서 리프인의 독자성을 주장하며 공화국 건설 선포. 전쟁 패배로 프랑스인 대규모 이주 | |
| 1930 | 프랑스에 맞서 ‘다히르 베르베르(Dahir Berbere)’ 폐지를 주장하는 모로코 민족주의자들이 출현하여 국제적인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함 | |
| 1944 | 모로코 독립당 이스티크랄(Istiqlâl)당 창당. 왕정제를 주장하고, 아랍·이슬람 문화를 강조 | |
| 1956 | 모로코 독립. 왕의 근위군이 구성됨. 베르베르인들은 성공하지 못하지만 베르베르어와 문화에 대한 인정을 요구 | |

표 4-2. 계속

| 연도 | 내용 | 비고 |
|------|--|------------------------------|
| 1958 | 국왕 모하메드 5세가 민주화를 천명하지만 리프지역을 억압하기 시작함. | |
| 1959 | 메흐디 벤 바르카(Mehdi Ben Barka)에 의해 사회당인 UNFP(국민연합전선) 창당. 이후 하산 2세 축출에 앞장서다 1965년 파리에서 살해됨 | |
| 1961 | 하산 2세 즉위. 국명을 모로코왕국으로 변경함 | |
| 1967 | 첫 번째 아마지그문화협회를 수도 라바트에서 결성 | |
| 1971 | 왕국수비대 소속 베르베르인에 의한 쿠데타 발생 | |
| 1973 | 국왕 전용기 피격 및 중앙 아틀라스 군 반란. 실패로 끝났지만 하산 2세는 정치적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닫고 다양한 세력을 아우르면서 아랍 베르베르 계층을 개혁주의자들로 교체해가기 시작 | |
| 1978 | 독립당과 아랍 베르베르족을 절충하여 창당한 RNI(민족독립당)를 기반으로 실시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둠. 베르베르 문제는 과거와 같이 모로코에서 정치 전면에 등장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경제와 서사하라 문제가 부상함 | 총 164석 중 141석 차지 |
| 1979 | AMDH(모로코인권협회, L'Association Marocaine des Droits Humains)가 구성되고 모로코에서 인권 문제를 처음으로 다루게 됨 | |
| 1981 | 카사블랑카에서 물가 폭등으로 인한 소요 사태로 수백 명의 사상자 발생 | |
| 1994 | 베르베르주의자 위기(체포, 구금, 석방). 하산 2세는 베르베르어 강화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며 베르베르인에 대해 억압이 아닌 실용주의 노선 다시 채택 | |
| 1995 |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베르베르인대회'에 10개의 모로코 단체가 참여하여 베르베르어 문화 유지, 발전 방향을 모색함 | |
| 1996 | 다섯 번째 헌법 개정. 투표자의 99.56% 찬성으로 채택됨 | |
| 1997 | 16개 정당이 참여한 총선 실시. 3개의 베르베르 정당 사회주의연합 57석, 인민운동당 40석, 애국인민운동당 19석과 나머지 정당 헌법연합 50석, 자유민족동맹 46석, 독립당 32석, 민주사회운동당 32석, 민주애국당 10석 획득 | 베르베르와 관련된 정당들이 의회에 대거 진출하게 됨 |
| 1999 | 모하메드 6세 즉위(의회해산권, 비상사태 선포권 등 모든 실권 행사) | |
| 2000 | 모하메드 샤페크(Mohamed Chafik)의 주도로 '아마지그 선언문' 발표 이후 베르베르 문화단체 및 서적, 잡지 등이 대거 출간됨 | |
| 2001 | 모하메드 6세 현직 국왕으로는 처음으로 리프지역을 비롯한 북부지역 순시 및 현직 집무. 리프족의 지지기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

표 4-2. 계속

| 연도 | 내용 | 비고 |
|------|---|---------------------------------|
| 2002 | 26개 정당이 참여한 총선 실시. 22개 정당이 의석을 차지했으며 사회당 의석이 축소 반면 현재 가장 영향력이 큰 PJD(정의개발당, Parti de la Justice et du Développement)가 제3당으로 부상하는 이변 | PJD는 1998년 다른 온건 이슬람 정당과 연합해 탄생 |
| 2003 | 카사블랑카에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테러로 8개월 이상 5,000명 이상이 체포·타종교 금지 및 아랍·이슬람주의를 요구했지만 이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세력이 약화되고 베르베르인들의 주장이 세력을 얻음 | |
| 2003 | 왕립 아마지그문화원(Institut Royal de la Culture Amazighe) 설립 | |
| 2011 | - 7월 1일 국민투표 실시. 투표자의 98.49% 찬성. 헌법 개정을 통해 국왕 권한을 총리에 대폭 이양. 베르베르어를 모로코 공식어로 지정 - 11월 25일 총선 실시. 베르베르인들이 더 많은 민주화를 요구하며 총선 보이콧. PJD가 전체 395석 중 107석을 차지. 이스크랄당 등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친 왕정 정당에 비해 압도적 우세를 점함. - 11월 29일 압텔라라 벤키라네(Abdelilah Benkirane) PJD 사무총장 총리로 지명. 이슬람 정당이지만 왕권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고, 반아마지그를 표명하고 있음 | |

베르베르 정책과 관련하여 2011년은 모로코에서 중대한 계기가 이루어진 해이다. 2월 20일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틀 속에 베르베르 문제를 상기시킨 바 있으며, 3월 20일 왕의 연설을 통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베르베르적 모로코 정체성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모로코 정체성의 핵심임을 명확하게 인정하였다. 이것은 중동의 민주화 영향으로 소수문화 혹은 토착문화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흐름의 하나로 볼

그림 4-1. 왕립 아마지그문화원



수도 있지만, 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씨앗을 미리 제거함으로써 지역을 안정시키고 다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겠다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로 볼 수 있다. 헌법 개정을 통하여 공식화된 이러한 변화의 파급효과는 어떤 것이 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2011년 7월 1일 국왕이 직접 주도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는 참가율 73%에, 98.5%의 찬성이라는 기록적인 호응을 받으며 통과되었다. 국왕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 신임을 보여준 신헌법은 종교와 군대를 제외한 왕의 권력을 수상에게 대폭 이양한다는 내용이 핵심 사안이었다. 신헌법에 포함된 또 다른 사안인 국가 정체성 재정립과 베르베르어 공식화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지만, 어쨌든 베르베르어가 신헌법에서 공식화된 것은 그 자체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모로코 신헌법 전문과 베르베르에 관한 내용이 있는 제5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¹³⁾

가. 헌법 전문(Préambule)

모로코의 구성요소를 아랍·이슬람, 아마지그(베르베르), 사하라-하사니(Arabo-Islamique, Amazighe et Saharo-Hassanie)로 규정하며, 아프리카, 안달루시아, 헤브라이, 지중해의 영향을 받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선왕인 하산 2세 치하에서 모로코는 아프리카에 뿌리를 둔 아랍·이슬람 국가로 지중해·유럽권에 속한 국가라는 정체성 규정에서 변화한 것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에서 베르베르적 요소를 추가 인정하고, 헤브라이적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13) 2011년 7월 17일자 관보, 5952호 인용.

나. 제5조: 베르베르어(아마지그어)의 공식어 인정

아랍어는 국가의 공식어라는 사실을 재천명하고 국가는 아랍어의 발전과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아마지그어’가 예외 없이 모든 모로코인들의 공통 유산으로 국가의 공식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직적인 입법을 통하여 이 언어에 공식적 성격을 부여하는 과정과 아울러 교육 내 도입방식과 공적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식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이는 ‘아마지그어’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2003년 ‘왕립 아마지그 문화원’ 설립을 통해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문화원의 7개 소단위 연구소에서는 문화를 발굴 및 정리하고 이론화하며 확산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과 생활화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국영 채널 TV 8은 아마지그어로 방송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다. 이 외에도 언어의 문법적 정리, 문자화를 통한 교과서 제작, 교육과정 수립, 실제 교육 실행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선택 사항으로 아마지그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4개 대학에는 아마지그어 전공 학사 및 석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모하메드 6세 즉위 이후 베르베르인들에 대한 모로코정부의 입장이 선화하게 된 데는 우선 정치적 결정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현지인들은 보고 있다.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베르베르인들을 선왕 하산 2세처럼 억압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헌법 개정을 서두르게 한 것은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 세계의 민주화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튀니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민주화 시위가 번져가자 모하메드 6세는 다양한 조치의 일환으로 헌법 개정 주도와 자발적인 권력 이양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

베르베르의 정체성과 언어 인정은 소수자 인정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이슬람적 정체성으로 단일화하고 강화하려는 아랍·이슬람주의에 대항하는 하나의 정치적 판단이라고도 볼 수 있다. 모로코는 국민 전체가 무슬림이지만 이슬람의 정통적 신앙 실천에서는 상당히 벗어나 있다. 아랍·이슬람주의에 의해 상실된 이러한 비종교성을 최대한 되찾고 유지하려는 모습도 보이지만, 모로코 정당에 참여하고 있는 베르베르 문화운동가들이 대체로 진보주의자라는 점 역시 정책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모로코의 일부 지식인들은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아랍마그레브연맹이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는 ‘북아프리카연합’ 혹은 다른 명칭으로 재탄생해 5개 지역 국민을 연합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아마지그어가 공식어로 인정되고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면서 국가의 모든 분야, 즉 교육과정, 행정, 법, 문화, 미디어 등에서 제도적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한편 베르베르어를 국가 공식어로 지정하는 데 따른 비용이 막대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통계에서는 향후 10년간 약 6,000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지 않은 국가에서 이러한 비용을 산업화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그 밖에도 3개 주요 방언 가운데 어떤 방언을 표준어로 선택할 것인가, 구어로 유지되어온 방언 중 어떤 것을 문자어로 채택할 것인가, 선택된 언어와 선택되지 못한 언어 간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인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제5장

베르베르 대단위 지역과 사람들

북아프리카에서 베르베르지역은 거대한 지역에 돌출해 있는 마치 ‘거대한 섬’과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특별한 곳이다. 그러므로 단기간의 연구를 통해 이 거대 지역을 모두 살펴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연구팀은 목표 기일 내에 최대한 연구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이들 지역의 이동경로를 감안하여 네 개 지역에 대해 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제안서에는 세 개 지역을 살펴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상호 연계 속에 지역적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여기에서는 현지 조사 연구를 수행한 네 지역 모두를 소개한다.

1. 카빌리(Kabylie)의 카빌(Kabyle)

베르베르 문화운동에서 프랑스어로 교육받은 카빌리 지식인들이 수행한 역할¹⁴⁾은 알제리에서 널리 인정받았는데, 프랑스 사회과학자들은 그들이 프

14) 이 점은 현재도 그렇지만, 특히 독립 이전 혹은 독립전쟁 당시 또한 마찬가지이다.

랑스어로 교육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카빌리인들이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특히 상업이나 기업에서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으며, 그들의 활동은 마르크시즘이나 공산주의 계열 담론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본다. 국가기구 내에 많이 진출해있는 기술 및 관료 세계, 그리고 문화계에서 전통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주목 대상이다. 현재 총리를 비롯한 몇몇 장관이 카빌리 출신이다.

카빌리는 특히 지형이 험한 고산지대라는 점과 강한 사회적 결속력 등으로 알제리 타지역과는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지중해 주변, 즉 칼라브리아, 레바논 산지, 알바니아, 리프 등을 생각한다면 그리 특이한 것은 아니며, 바다나 육지에서 주요 교역과 관련하여 개방되어 있다. 바다에 면해 있고 알제-콩스탄틴을 잇는 도로와 거리를 두면서도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확보하고 있다. 알제리 전체를 볼 때 그리 넓지 않은 면적에 약 6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1km²당 인구밀도가 500명에 달한다.¹⁵⁾

농업이 주 생계수단이지만, 땅에서 얻는 소출이 충분하지 않아 건기에는 생존을 위해 고지대 평원이나 녹지의 풀을 이용하여 목축을 해야 했으며, 여러 방식으로 보완책을 찾아야 했다. 서쪽 고지대에서는 겨울 방목, 계곡 바닷이나 경사가 완만한 지대에서는 곡식 농사, 마을이나 샘 가까이에서는 농사나 과일수 재배, 고지대 마키에서는 여름 방목 등을 한다. 그 밖에도 식량 조달이 어려운 남쪽과 동쪽에서는 더 먼 거리까지 이동하여 이종으로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농사로는 식량 조달이 항상 어려워 부수적인 활동으로 생계를 보조해야 했다. 수공업과 상업이 그것이다. 카빌리지역에서는 길거리는 물론

15) 알제리 총인구의 17%에 해당되며, 전 세계에는 1,000만 명 정도의 화자가 있다. 카빌리인들은 특히 마그레브지역보다 프랑스를 비롯한 외국에 가장 많이 진출해 있다.

곳곳에서 수공예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카빌리의 자우이아(Zaouia)와 메데르사(Medersa)가 유명해진 것은 이런 식으로 발달한 상업망 때문이다. 이곳 사람들은 상업을 가치 있는 직업으로 생각하였다. 그 밖에도 과거 오스만튀르크군 입대, 알제리나 콩스탕틴의 부잣집에서 하인 등으로 부역했으며, 이는 생계를 확보하기 위해 외부 지역에서 구한 직업들이다.

카빌리의 사회체제는 마을 모든 남자들이 참가하는 민주주의적 집회 ‘제마야’와 대개 종교으로 권위를 확보하고 있는 대가문들이 맺고 있는 관계로 운영되는 안정적인 체제였으며, 사회적 유대가 공고하였다.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경제적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외부로의 이주가 일찍부터 활성화되었다. 알제, 오랑과 같은 대도시로의 이주뿐 아니라 프랑스, 벨기에 등 해외 이민자들도 상당히 많다. 부수적 수입을 찾기 위한 긴 이민의 역사 속에 이민 지역은 시대마다 달라져왔다. 19세기 중반부터는 식민정부의 소유가 된 농지, 포도 재배가 시작되면서부터는 미터지에서, 사프사프와 같은 넓은 농지에 이어 식민정부가 건설하는 대도시 노동자로도 일했으며,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프랑스로의 이민은 제1차 세계대전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캐나다로의 이민이 활발하다.

이민은 공식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1931년경 카빌리 최대 도시 티지 우주(Tizi-Ouzou) 시(市) 20~50세 사이 남자의 22%가 프랑스 도시들에서 일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에 이은 ‘30년 호경기’ 동안은 건설과 산업화의 필요에 따라 프랑스 이민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당시 프랑스 이민자들 중 알제리에서 온 이민자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을 정도였다.¹⁶⁾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기술을 익히게 되자 이민지가 스위스, 벨기에, 독일로 다양화되고 자국 내에서도 사회 인프라, 공장, 석유 채굴시설을 위시한 취업

16) 알제리인들이 이주하기 전 프랑스 이민자들 대부분은 동유럽을 비롯한 유럽지역 국가들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특히 포르투갈을 비롯한 이탈리아, 스페인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의 기회가 늘어났으며 중동으로도 진출하였다. 1970년대 중반까지 이러한 수입으로 카빌리 경제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1973년 아랍 이슬람화 정책, 프랑스 석유회사의 국유화선언, 프랑스인 프랑스어 교사 본국 송환 등에 따라 프랑스와 알제리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었으며, 결국 부메디엔 대통령이 이민을 금지하고 프랑스도 1974년 이민 중단을 결정하면서 카빌리지역의 경제도 위기를 맞게 되었다. 수입원이 줄어들고 알제리에서도 취업이 어렵게 되면서 카빌리의 반발, 문화적 차별에 이어 ‘베르베르의 봄’이 시작된 것이다.

카빌리의 저항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카비리는 블레드 시바, 즉 저항의 땅이었다. 조밀한 인구의 산악지는 저지대 농지가 필요하였으며, 이런 지리적 조건이 외부 세력과 다툼을 피할 수 없게 하였다. 이해의 충돌은 수크(souk)에서 교류나 혼인 등을 통하여 타협점을 찾기도 했지만, 극한 상황에서는 부족 간 격렬한 전쟁으로 확산되기도 하였다. 카빌리 사람들은 외부 정복자에게 가장 늦게까지 가장 강하게 저항했던 베르베르인들이었다. 프랑스가 1830년에 정복을 위해 알제리에 들어갔지만, 1871년에서야 카빌리의 봉기를 완전히 진압하며 정복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런 저항성 때문에 터키 제국도 세금을 걷거나 알제-콩스탕틴 사이의 길을 감시하는 정도로 만족하였다.

일부 지식인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저항 운동이 일반 민중에 의해 자발적,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반면에 특정 집단의 이익이 반영되지만 아랍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영국인 로버츠는 경제적 측면에서 이런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프랑스로의 이민, 상업 및 기업 부르주와지 구성, 소속 공동체에 대한 강한 애착과 결합, 독립전쟁에 대규모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정체성 의식이 가속화된다. 또한 아반 람단 등과 같은 정치지도자 살해, 예술계 인사들의 피살 등을 통해 피해의식과 저항성을 더

육 가속화시켰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 가장 확실한 것은 프랑스 이민, 서구 문화에 대한 동화와 언어·문화적 동질성이다. 카빌리는 타지역, 예컨대 인접한 오레스지역보다 비종교적 성향이 강하고 서구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인구 전반에 걸친 서구화, 특히 프랑스의 영향이 깊게 남아 있다. 그러므로 중앙권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는 주장과 정반대인 주장도 있다. 현 알제리 정부가 이 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위협과 공개적 탄압을 하기도 하고 정부 대표를 파견하여 이념적, 문화적 통제를 하였으며, 때로는 개발계획을 발표하거나 정부 대표가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베르베르어 장려책을 발표하여 유화 정책을 취하기도 하였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역을 행정적으로 분할하여 이 지역의 단합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글상자 5-1. 카빌리 출신 인물

- 작가: 장 암루슈(Jean Amrouche), 몰루드 페라운(Mouloud Feraoun), 몰루드 맘메리(Mouloud Mammeri), 아시아 제바르(Assia Djebar), 몰루드 이슈르(Mouloud Achour) 외 다수
- 정치가: 아미루슈 대령(Colonel Amirouche, 독립군 지도자), 아반 람단(Abane Ramdan, 독립군, 인민해방전선 간부), 사이드 사디(Said Saadi, RCD 정당 당수), 아이트 아흐메드(Ait Ahmed, FFS 정당 당수) 외
- 경제인: 라브라브(Rabrab, 세비탈CEVITAL 회장), 하다드(Haddad: 알제리 최대 도로건설공사 ETRHB 사장), 라힘(힐튼, 아르디스 호텔 사장)
- 스포츠맨: 지네딘 지단(Zinedine Zidane), 카림 벤제마(Karim Benzema) 등

2. 오레스(Aurès)의 샤우이(Chaoui)

‘샤우이(Chaoui)’는 알제리 동부지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베르베르인들로 오레스지역과 인근 염호지대, 콩스탕틴에서 이어지는 평원과 고원, 그리고 사하라 사이 고지대 등에 거주하고 있다. 세티프, 헨솔라, 바트나, 테베사, 켈마와 같은 도시들이 거점이며, 콩스탕틴, 비스크라, 세티프에도 부분적으로 이들 종족이 거주하고 있다. 경작지가 많지 않아 농업과 목축을 겸하는 반유목 생활을 하고 있다. 고원이나 계곡, 오아시스에서 곡물을 재배하고 이동 목축을 겸하고 있지만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들로 이동하여 살고 있다. 북서부 계곡에는 정주민들이 곡물 농사와 과수 농사를 지으며 큰 마을을 구성하고 있지만, 남동부의 건조한 계곡들은 목축업과 밀 등을 경작하는 지역으로 인구밀도가 낮다. 이 지역민들을 흔히 ‘샤우이’라고 부른다. 카빌리 지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언뜻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외부와의 접촉 때문에 문화적으로 차이가 크다. ‘샤우이’는 현재 약 3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자급자족과 오랫동안 외부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아 인종적 혼혈이 적다.

샤우이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구성하는 한 가문이 있고, 그보다 큰 집단인 분파(Harfiqth)나 부족인 경우 그것을 구성하는 가문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거나 세력이 있는 가문의 이름을 취한다. 분파가 가장 중요한 단위로 남자 구성원은 1년에 한 번 모여 조상께 제사를 지낸다. 어떤 가문의 일부와 여러 가문의 연합으로 분파를 구성하기도 한다. 의례적인 유대관계이지만 한 분파는 중심 가문을 모델로 같은 구조로 기능한다. 한 분파의 북쪽은 정주민들이 대개 한 동네를 이루고, 남쪽 유목민들의 경우는 부족(clan)에 상응하지만 그 차이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정주민들도 토지 소유만으로 분파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오레스 지방의 베르베르인들에게 ‘샤우이’라는 명칭이 붙게 된 것은 최근의 일로 부족 명칭만 있었던 지역민들을 아랍인들이 그렇게 부른 것이고, 현재는 지역민들이 스스로 부르는 명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의 언어 역시

■ 그림 5-1. 샤우이들의 모습 ■



‘샤우이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베르베르인들 중에서도 아랍화가 가장 많이 되어 있으며, 무슬림 신앙이 견고하다. 과거 역사에서는 베르베르 왕국이 건설되었던 지역이며 아랍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기도 하였다. 최초의 마그레브 이슬람 정복자 이븐 오크바(Ibn Oqba) 또한 이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슬람 세력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였지만 현재는 이슬람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으니 역설적이다.

오레스는 베르베르 왕국 건설 외에도 로마시대 유적지 팀가드(Timgad)나 제밀라(Djemila)가 보여주듯이 외부와의 교류가 활발하였다. 이후 아랍인들이 침입하면서 내륙 지대 중 외부의 침공과 저항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았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 세력에 대한 저항도 그만큼 격렬하여 이슬람 최고 사령관을 살해했던 것이다. 프랑스 침공에 대한 군사적 저항 외에도 독립군이 조직되고 처음으로 활약했던 지역이다. 지역에서 독립군 활동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묘지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보인다. 초기 독립군을 지휘했던 여섯 명의 대장 가운데 세 명이 샤우이인이었다. 독립전쟁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일반인들에게 각인되어 있으며 이는 특별히 이 지역의 큰 자부심으로 남아 있다. 독립전쟁 이전 가장 큰 규모의 시위가 발생

했던 세티프(Setif)지역은 프랑스어가 일종의 터부처럼 작용하여 간판에는 대개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카빌리보다 훨씬 더 아랍화된 지역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샤우이인 스스로도 카빌리와는 달리 아랍이 가장 문명화된 종교이자 종족이라고 믿으며, 이슬람 율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현지 조사를 통해 접한 지역민은 카빌리지역민과 차이를 드러내고 프랑스에 대한 반감도 드러낸다. 반면 이슬람주의에 대한 저항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약하다. 이슬람주의에 대한 저항이 카빌리보다 훨씬 약하다는 사실은 오레스의 도시인 세티프, 바트나(Batna)에서 수행한 면담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프랑스에 대한 반감은 식민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다는 데서 기인한다. 오레스지역은 프랑스 식민정부가 학교를 거의 설립하지 않아 독립 당시 취학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었다. 대부분의 마을에는 198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전기나 수도가 공급되지 않았다. 이렇듯 열악한 상황이 주민들로 하여금 이민을 떠나게 하였다. 대부분의 지역민들이 1960년대 프랑스로 이민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였다. 도로 건설, 전기 및 가스 공급, 저수지 건설 등은 1990년대 초의 이 지역 출신인 부메디엔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1990년 초 내전으로 수차례 중단되기도 하였다. 현재 중국의 진출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이들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오레스지역의 경계는 시대에 따라 달라져왔는데, 그 중심은 동서로 놓인 오레스 산맥이다. 오레스 산맥 북부 안나바(Annaba)와 스킨다(Skikda)를 포함하는 해안과 산맥 남부지역만을 지칭하던 것이 독립전쟁 당시 독립군이 동부지역의 대부분을 율리아 1로 구분하면서 지역이 넓어져 알제리 동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 50km²에 이르는 지역이 되었다. 행정구역상 여러 율리아를 포함하지만 현지인들을 오레스지역만의 특징을 드러내는 곳으로 현지인들은 바트나와 헨술라(Khenchela)에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다.

지역어를 ‘타시위트’, ‘샤우이’라고 부르며 주로 바트나지역을 지역어를 쓰는 지역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아랍어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절대다수가 이중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이 큰 의미는 없다. 독립 이후 콩스탕틴, 안나바, 알제 등의 도시로 이주하거나, 튀니지 및 프랑스로 이민하여 인구가 분산되면서 급격하게 아랍어화 되었다. 현재 언어 구사자를 최소 200만 명에서 최대 3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샤우이어는 부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알제리 북부지역(카빌리, 슈누아(Chenoua))의 베르베르어와 친연성이 높아 즉각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들은 베르베르적 정체성을 카빌리만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이들에게 아랍어는 이슬람 문명을 전파하고 자신들을 개화한 언어로 프랑스어보다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부터 베르베르 문화운동이 시작되었으며, 현대화한 전통가요들이 일반 대중들에 보급되고 있다. 베르베르 문화운동 단체로는 아마지그 문화운동(1994. 4. 20 창립), 아마지그 문화 오레스 연맹 등이 있다. 이 단체들에 청년층의 참여가 많지는 않다고 한다.

현재 바트나지역 라디오 방송이 있으며, 라디오-알제리 2 방송에서 매일 한 시간씩 샤우이어로 방송한다. TV 방송에서는 4일에 1회 한 시간씩 샤우이어로 뉴스를 방송한다. 샤우이어를 학교 교과과정에 신설하여 지원자에 따라 교육하게 되어 있으나 실패하였고, 현재 대학수능시험에만 포함시키고 있다.

글상자 5-2. 오레스 출신 인물

- 역사적 인물: 마시니사(Massinisa), 유구르타(Jugurta), 아플레우스(Apulée), 성 어거스틴(Saint Augustin), 성 모니카(Sainte Monique), 카헤나(Kahéna) 여왕, 타릭 이븐 지아드(Tarik Ibn Ziad)
- 정치가: 모스테파 벤 블라이드(Mostéfa Ben Bouláid, 독립군 대장), 라르비 벤 음히디(Larbi Ben M'hidi, 인민해방전선 지도자), 시 엘 하우에스(Si El

글상자 5-2. 계속

Haouès, 독립군 지도자), 우아리 부메디엔(Houari Boumedienne, 알제리 전 대통령), 아흐메드 우이아히이(Ahmed Ouyahia, 현 국무총리)

- 작가: 카텡 야신(Kateb Yacine), 라쉬드 부제드라(Rachid Boudjedra)
- 기타: 현 주한 알제리 대사: 호신 사흐라우이(Hocine Sahraoui), 무사 벤하마디(Moussa Benhamadi, 텔레콤 사장)

3. 음자브(M'zab)의 모자비트(Mozabite)

스텝지역이 끝나고 사막이 시작되기 전 ‘하마다’라고 부르는 암석들이 산재한 곳이 있는데, 알제리 사하라 북부지역이다. 계절에 따라 잠시 급류가 흐르는 음자브 우에드(Oued, 우기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강)가 가로지르는 계곡을 따라 다섯 개의 소도시가 위치해 있다. 멜리카(Melika), 베니 이스구엔(Beni-Isguen), 엘 아테우프(El-Ateuf), 부 누라(Bou Noura), 가르다디아(Ghardaia)가 이에 해당되며, 연구는 대략 4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11세기 초에 건설된 이 지역은 쿠란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독자적 교리를 가졌으며, 현재는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이다. 새로운 도시도 자신들만의 공동체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한 엄격한 도시계획을 토대로 건설하였다. 도시들은 피라미드 모양의 요새 도시로 이루어졌고 모두 성벽을 쌓았다. 도시 중앙에는 햇볕에 말린 벽돌로 지은 작은 모스크와 미나레트가 남아 있다. 방어용으로 썼던 미나레트는 위로 갈수록 좁아지며 꼭대기는 왕관 모양으로 만들었다. 모스크 주변에는 사각 모양의 집들이 동심원 모양으로 뿔뿔이 늘어서 있다. 집들은 창문이 활짝 트여 있지 않으며 바깥쪽은 거의 황토색으로 칠해져 있다. 198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음자브인들은 베르베르족이면서 일찍이 이슬람으로 개종하였다. 이들은 이슬람 카와리지파의 이바디 분파 교도들이다. 이들의 조상은 티아레(Tiaret)에서 쫓겨나 9세기경 사막으로 피난한 아브드 알라흐만 이븐 루스탐의 이바디 교도들이었다. 현지인들은 이들이 지금은 아주 소수만 남아 있는 우아르글라(Ouargla) 근처인 세드라타(Cedrata)에 도착했으며, 11세기경 방어를 이유로 지금의 도시를 건설했다고 한다. 음자브인들이 믿는 이슬람교는 매우 엄격하고 청교도적이며 평등주의적이지만 분리주의 성격도 띤다. 이들은 자기 종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정도로 폐쇄적이다. 신체적으로 대체로 키가 작으며 땅딸막하다. 부녀자들은 베일을 깊숙이 쓰고 한쪽 눈만을 내놓으며, 거주지역을 떠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남자들은 알제리 곳곳에서 조그만 업체나 식료품점을 경영하면서 정기적으로 오아시스로 돌아가기도 한다. 대부분의 베르베르인처럼 음자브인들은 자기나 보석류, 특히 카페트 등의 다양한 수공예품을 생산한다.

공동체적 삶을 강조하는 음자브인들은 엄격하고 복잡한 체계에 따른 물의 분배와 댐 건설에 힘입어 풍요로운 농장을 가꾸고 있다. 울창한 대추야자 숲이 상류 쪽으로 길게 뻗어 있으며, 강에 세워진 댐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는다. 50도가 넘는 열기를 뿜는 여름철 사막기후와 겨울은 건조하고 2년 혹은 3년 주기로 오는 집중 호우가 있지만 메마른 땅을 적시는 기회다. 음자브 도시와 건축은 이 드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땅을 고르게 적시도록 구성되었고 대추야자에 물을 주는 관개시설과 지형을 이용하여 물을 가두고 분배한다. 분배시설은 자연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 해결방식을 찾은 수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야자나무숲 아래에서는 과일이나 곡류를 재배한다. 천연가스지대가 음자브지역에서 멀지 않아 갈수록 근대화의 희망이 높아지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 지역은 1882년 프랑스에 합병되었다가 독립 후에서야 알제리로 귀속되

었다.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지만 이슬람교를 독특하게 믿는 관행이 있기에 언어적 특징은 오히려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향후 알제리 전체 문화와 어떻게 융합해갈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사하라에 거주하는 투아레그족과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있는데 이 또한 눈여겨볼 사항이다. 반면 산간지역에 위치한 카빌리와 오레스지역과는 교류가 별로 없다.

4. 리프(Rif)의 리팡(Rifain)

‘리팡(Rifain)’은 모로코 북부지역에서 남동쪽으로 약간 비스듬히 뻗어 있는 리프(Rif) 산맥과 지중해 해안지대에 살고 있는 베르베르인들을 말한다. 리프지역은 고산지대 서쪽과 산이 약간 낮고 평원지대인 동쪽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곳의 중심 도시는 알 호세이마(Al-Hoceima)와 나도르(Nador)이며, 인구는 약 2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15세기부터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연이은 침공을 받았으며, 1912~56년 사이 스페인의 보호령이 되었다. 도시는 생활조건이 전국 평균 정도이며 문맹률도 낮은 지역이지만, 산지와 평원의 농촌 인구 다수가 문맹으로 남아있다.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나, 현재는 유럽 이민을 통하여 국가 평균 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과 가장 가까운 위치여서 이민이 쉬운 유럽에 이민한 리프인의 수는 현재 200만 명으로 추산된다.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의 모로코인 이민자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반체제적 성향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 소외를 받았으며, 이런 경향은 현 국왕 모하메드 6세 치하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리프어는 베르베르어 가운데 샤우이어, 슈누이(Chenoui), 음자브와 같은 하위어군에 속하여 친연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 세 지역과의

교류가 현재는 거의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친연성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리프인들은 근대사에서 저항정신과 용맹함으로 유럽 식민주의에 대항했던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21년 스페인과 벌였던 ‘리프전쟁(La Guerre du Rif)’이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 전쟁으로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베르베르인 중 가장 용맹한 종족으로 불리게 된다. 이 전쟁은 스페인에서 노동자로 일하던 중 스페인 사람과의 다툼으로 투옥되었던 압델크림 알 카티비(Abdelkrim Al-Khattabi)가 출옥 후 알호세이마 근처 고향으로 귀환하여 지역 부족들을 규합하여 반군을 지휘하면서 일어났다. 지역 베르베르인들이 합세하여 6만 명에 이르는 스페인군과 전투를 벌인 결과 아누알(Anoual)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고, 스페인 장군을 사살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리프부족연맹공화국(République Confédérée des Tribus de Rif)’을 독자적으로 창설하고 프랑스 보호령하에 있는 부족까지 규합하고자 하였다. 1925년 프랑스 총독 리오테(Lyautey)도 이들에게 패배하여 페스와 타자(Taza)로 후퇴하였다. 프랑스정부는 페탱(Pétain) 장군이 이끄는 증원군을 파견하여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으며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다. 전투가 어려워지자 베르베르인들은 지휘자에게 협상하라는 압력을 가한다. 알 카티비(Al-Khattabi)는 협상을 제안하지만 프랑스와 스페인의 강경한 입장으로 결렬된다. 베르베르군은 결국 항복하게 되고 지도자는 레위니옹(Réunion)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된다. 곧 프랑스정부로부터 프랑스로의 귀환을 허가받지만 마르세이유에서 탈출하여 1963년 카이로에서 사망하였다.

1958년 리프인들은 중앙정부에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켰고 당시 군 사령관이었던 하산 2세가 3만 명의 군을 이끌고 진압에 나섰다. 이 사건으로 리프인들은 하산 2세 치하 동안 정치의 장에서 배제되었다. 1984년 또 다시 2차 봉기를 일으켰지만 진압되었다. 모로코의 베르베르족들이 대부분 온건한 성향을 보이는 데 반해 리프족들은 프랑스든, 현재의 정부든 항상 저항적인 태

도를 견지해 왔기 때문에 향후 이들 지역민들과 이 지역 출신 유럽거주민들의 태도에 따라 모로코 내 베르베르 정체성 요구의 향방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모로코의 베르베르인들 중에서도 북부의 리프 지방과 중남부 수스(Sousse) 지방은 경제 활동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 북부는 유럽에 거주하는 1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 송금이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중남부는 외국 이민은 물론 국내 이동으로 특히 상업에 종사하며 경제계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이 모로코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분리 독립과 같은 요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이루어진 정체성의 인정만으로도 만족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실제 현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사건은 보이지 않는다. 모로코에서는 베르베르어 단일 구사자의 수가 상당히 많지만 지배언어이자 공식어인 아랍어화가 진행 중이며, 아랍화가 진행되면서 자신을 아랍인으로 규정하는 베르베르인의 수가 늘고 있다. 언어와 함께 정체성이 약화되는 현상은 베르베르어에 비하여 아랍어가 상대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것이다. 2011년 헌법 개정이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제6장

오늘의 마그레브 청년들, 일상과 일탈

청년 세대들의 문제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겪는 문제이다. 마그레브지역 청년 세대들의 문제는 그 지역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민자가 많은 프랑스, 그리고 다문화 사회로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문제까지도 생각하게 한다. 마그레브의 베르베르지역 또한 마찬가지이다. 연구팀의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볼 때, 마그레브 청년 세대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여기에는 베르베르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물론 이람·이슬람인으로서의 정체성 약화, 국가체제에 대한 긍정과 부정, 언어 선택의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베르베르 청년들의 고민, 일상과 일탈의 모습을 현지 자료 및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겠다.

베르베르 청년들 중 카빌리 청년들은 세계화가 진행되어감에 따라 자신들의 소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들은 과거 베르베르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정치와 사회, 부자들에게 대한 반감, 그리고 자신들의 자부심으로 생각하는 평화와 평등주의가 변질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한다.

결국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으로 이들은 본국을 떠나거나 음주, 약물복용을 통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¹⁷⁾ 모로코의 리프지역 청년들은 일자리와 경제가치 때문에 베르베르어보다 스페인어, 프랑스어, 영어 등의 언어를 선호한다. 자신들의 이마지그어는 학문적으로나 구직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 배울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¹⁸⁾

1. 실업문제와 청소년 범죄 문제

알제리와 모로코의 실업률은 25~30%를 웃돌고 있다.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인한 실업 문제는 청년 혹은 청소년들이 무슬림으로서의 가치보다 범죄에 쉽게 빠지게 만든다. 청소년 범죄는 실업 문제 이외에도 여가문화 부재, 단체 활동에 대한 교육 부재, 가족 문제, 종교와 현실의 불일치로 인한 좌절 등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특히 알제리의 경우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여서 국립수사대 통계에 따르면, 2003년 3,076명, 2004년 3,123명, 2005년 3,700명의 청소년들이 범죄로 구속되었다. 2006년에는 5,000명을 훨씬 넘어섰고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이와 같이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급속도의 인구 성장으로 젊은 층이 늘어났고, 이들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한정되어, 실업자 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남녀 가릴 것 없이 알제리 젊은이들은 외국으로 이민을 가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약물 복용과 마약, 범죄, 매춘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알제리에서는 절도행위가 전체 범죄의 44%로 청소년 범죄 중 가장 높은

17) 카빌리의 베자이아 대학교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파악된 내용이다. 인터뷰 학생은 Allouch Mahmoud(법학과 2학년), Messaour Haoues(토목공학과 1학년), Hamoudi Fawzi(전기공학과 2학년), Fenzi Mohand(토목공학과 3학년), Boyrzane Ghilas(법학과 2학년)이다.

18) 리프지역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테투안 대학교 역사학과 문화유산 전공 석사과정 Nchid Kkesu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점유율을 차지한다. 이들은 휴대전화나 돈, 때로는 차량까지 닥치는 대로 훔치고, 이런 절도행각은 마약이나 약물중독, 혹은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저질러진다. 15~16세의 학생들 중 20% 이상이 마약 경험이 있고 그 중 1/4은 여학생들이라고 한다. 이로 인한 범죄는 물론, 청소년 성범죄와 성범죄로 인한 사생아와 미혼모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매춘 행위는 현재 알제리에서 금지되고 있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치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통제를 하는 데 공권력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마약퇴치본부 통계에 따르면 4만 명의 알제리 젊은이들이 마약으로만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다고 한다.¹⁹⁾ 청소년들이 이와 같이 사회적 문제로 언급되는 것은 무엇보다 가정과 학교교육의 부재가 중요한 원인이다. 청소년 범죄자들 대부분이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 중이고 혹은 혼자 자라거나 일 부다처제에 의해 희생당한 경우라고 전해진다. 이들은 가정에서 대화 없이 자랐기에 사회와 이웃에 쉽게 적대적인 감정을 품는 경향이 있다. 타인에 대한 배려 혹은 관용이 전혀 없어 난폭한 운전,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 등과 같이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로 이어진다. 심지어 이들이 이슬람을 극단적으로 신봉하는 경우 정부에 불만을 품는 극단적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되기도 한다.

베르베르지역에서는 이람·이슬람을 주장하는 것에 반하는 반정부 주축 세력이 되기도 한다. 극심한 실업이 학생들까지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고, 국가를 부정하며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만들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다. 오히려 외국 이민자가 복귀하여 부를 과시하는 현상이 심화되어 부족 간 문제보다 이민자 귀환으로 인한 부의 불균형 문제와 소외를 극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9) FOREM의 2011년 통계자료 참고.

2. 거리 문화

높은 실업률은 젊은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모로코와 알제리 거리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있다. 특히 젊은이들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젊은이들이 거리에 많이 나와 있는 이유는 특별히 할 일이 없고 마땅한 대안 여가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그레브의 베르베르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모로코보다 알제리의 경우가 더 심하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거리에 있는 것이 반드시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거리는 그들에게 문화공간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인이 거리를 지나칠 때면 어떤 주목을 받든지 감수해야 한다. 도시에서는 벽에 기대어, 사막지역으로 갈수록 나무나 혹은 모래바닥에 누워 이야기하거나 행인들을 쳐다본다. 거리는 남성만의 공간이다. 여성들이 거리에 서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거리에 나온 여성들은 남성들의 공간을 침입했다고 생각하는지 최대한 시선을 두지 않고 빨리 지나치려 한다. 거리가 남성들의 공간이라 할지라도 실제 일을 하거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볼 수 없다. 이는 역설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많은 실업자들이 갈수록 거리를 메우고 있음을 의미하기에 거리는 남성들의 공적인 공간이자 실업자들의 공간이기도 하다.

거리는 만남의 장소이기에 거리에서 열띤 토론을 하고, 토론으로 흥분을 감추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알제리의 경우 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인데, 낮에는 주로 젊은이들, 저녁에는 모든 사람들이 저녁을 먹고 나와 하루의 일이나 국가적인 일, 혹은 세계의 일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인다. 특히 라미단과 같이 밤늦도록 야외에서 있을 수 있는 기간에는 더 많은 토론이 벌어진다.

카빌지역이나 오레스, 리프지역에서는 도심 한복판 거리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일상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음자브의 경우는 다소 폐쇄적이어서인지

이런 현상을 보기가 쉽지 않다.

3. 음주 문제

이슬람 국가에서는 술을 금지하고 있다. 알제리의 경우 2003년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주류 수입을 금지시키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제리뿐 아니라 모로코에서도 음주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동시에 주류 생산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²⁰⁾ 모로코와 알제리는 프랑스 이전부터 포도 재배가 활성화한 곳이다. 로마인들이 이곳에서 포도를 경작하였고, 프랑스 식민지배와 더불어 포도주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술은 공개적으로 마시는 호텔이나 레스토랑, 바(bar), 나이트클럽을 제외하고는 마실 수 없게 되어있다. 하지만 많은 젊은이들, 그 중에서도 젊은 실업자들은 주로 밤에 술을 많이 마시며, 일반인들 중에도 평소에 술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갈수록 술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본래 이슬람과 술은 양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인 사회, 그리고 증가하는 실업률, 여가 문화의 부재, 정치에 대한 실망 등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술을 마신다. 음주 문제가 베르베르 정체성과 반드시 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카빌리 대학생들은 직업, 결혼, 주거지가 부재하기 때문에 현실에 절망을 느끼고 음주와 약물에 손을 대는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베르베르어권 중에서도 카빌리지역은 술을 가장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이람·이슬람적 색채보다 서구적인 사고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는 모로코의 리프지역 또한 마찬가지이다. 리프지역의 경우 유럽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알제리보다 술을 구

20) 모로코와 알제리는 포도주 생산 국가이다. 생산된 포도주는 수출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 유통된다. 알제리의 경우는 맥주까지 생산하고 있다.

입하기가 용이하며 고급 음식점과 호텔에서는 쉽게 술을 마실 수 있다. 반면 알제리의 오레스와 음자브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술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전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이슬람적 교리에 있어 가장 엄격함을 지향하는 음자브지역에서도 소수지만 음주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4. 성과 결혼의 문제

가장 개방적이라 할 수 있는 카빌리지역에서도 여성과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보수적인 편이라고 한다. 게다가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쳐 일상에서 남녀 간의 만남은 베르베르지역에서조차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닷가에 인접한 카빌리와 리프지역은 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개방되어 있다. 성에 대한 인식이 개방되어 있다고 해도 결혼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직업, 주택 문제가 일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인터뷰를 한 카빌리 학생들은 최근 들어 부쩍 실업에 대한 공포를 안고 있다고 한다. 실업 문제는 기성세대들이 격렬하게 투쟁했던 베르베르 문화운동과 같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위한 활동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게 한다. 오히려 취업과 결혼, 아파트를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가에 골몰한다.

갈수록 일자리가 없어지다보니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젊은 부부를 위한 주택 부족 문제 또한 심각하다. 여성 입장에서는 반드시 직업과 주택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지만 사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에 베르베르 청년들도 상당한 좌절감을 안고 있다. 남녀 간에 팽배해 있는 물질주의는 이혼율도 급격하게 증가시켜 향후 마그레브 사회에서 여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²¹⁾ 오레스지역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폐쇄적인 사회 구조이기에 부모들의 동의하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부족단위의

삶 형태가 잔존하고 있기에 부족 간의 결혼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한다.²²⁾ 음자브지역은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일부다처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띌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이슬람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성과 결혼 문제는 베르베르지역 청년들뿐만 아니라 마그레브 전역에 걸쳐 청년들을 좌절에 빠지게 하여 이민을 갈구하거나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트린다. 설사 직장을 구한다 해도 결혼은 갈수록 늦어지는 추세이다.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해도 이들의 월급으로는 아파트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남성들이 ‘마하르(mahar)’나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혼은 더 늦어지게 된다. 대도시에서는 이런 현상으로 인해 40대가 넘는 남성들이 20대의 젊은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성에 대한 인식과 이슬람적 결혼이 갈수록 퇴색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히잡

히잡(Hijab)은 이슬람권 여성들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부분이다. 히잡은 이슬람적 가치에 근거한 무슬림 여성들의 정체성과 여성들의 보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개 얼굴과 가슴은 물론 손까지 가리는 것과 얼굴만을 드러내는 두건 형태²³⁾의 것이 있다. 색깔 또한 지역마다 다양하여 마그레브지역에서는 다양한 색깔의 히잡을 착용한다. 때때로 도심이 아닌 지역은

21) 기존의 이슬람법으로 이혼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지만, 현실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샤리아법으로 이혼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무리라는 여론이 팽배하다.

22) Benboulaïd Nabila(59세, 사업가)와의 인터뷰.

23) 얼굴만 가리는 히잡 이외에 차도르, 니캅, 부르카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히잡’이란 용어를 이들 모두를 지칭하는 의미, 즉 ‘가리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걸프지역처럼 검은색으로 온몸을 가리는 여성들도 있고, 베르베르지역의 음자브처럼 흰쪽 눈만 가리는 여성들도 눈에 많이 띈다. 하지만 저항성이 강한 카빌리지역과 모로코의 리프지역은 이슬람식 히잡을 착용하지만, 자신들의 전통적인 복장을 입은 모습을 더 쉽게 볼 수 있다. 이렇듯 이슬람 문화에 관대한 오레스 지역이나 음자브의 경우는 히잡을 많이 착용하지만, 토속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색채나 모양을 달리한다. 오레스의 경우는 흰색과 검정색, 음자브의 경우는 흰색을 주로 착용한다.

마그레브에서는 히잡을 착용한 여성들이 흡연이나 길거리에서 애정 행위를 하는 경우 등도 볼 수 있다. 오늘날의 카빌리와 오레스, 리프지역의 경우,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오히려 히잡을 더 착용하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 히잡이 여성의 지위 상승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현대 사회에서 히잡은 부모의 강요, 남편의 강요, 개인의 종교적 신념, 상대에 대한 의식, 지역적 차이 등에 따라 이용되지만, 시골로 갈수록 히잡의 순수성은 대체로 보존되어 있는 편이다. 알제리의 경우 히잡은 과거 테러리즘시대와도 무관치 않다고 한다. 알제리 신문 『El Watan』은 알제리 여성들의 히잡 착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 증가율은 단지 종교적인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말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히잡 착용으로 자신의 종교성을 드러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제7장

결론 및 제언

베르베르어권(베르베르인)에 초점을 맞추어 ‘북아프리카—마그레브지역의 부족 간 갈등 양상’을 파악하고자 했던 이 연구의 현지 조사를 통해 가장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은 ‘베르베르인(아마지그·아마지겐)’의 존재감이었다. 특히 1개월에 걸쳐 마그레브의 중추를 이루는 두 국가 알제리와 모로코를 방문하여 수행한 현지 연구조사는 그 존재의 현실감을 강도 높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의식하고 표출하는 방식이나 일상에서 정체성을 구현하고 보존하는 방식은 지역이나 개인에 따라 달랐지만 ‘베르베르’라는 단어는 특정 지역에 제한되지 않고 어디서나 접할 수 있었다. 상술하였듯이 아랍·이슬람화가 시작된 지 1,0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으며, 근·현대사 속에서 베르베르주의가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더욱 놀라운 사실이었다. 이 지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로 보인다.

지역 선주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그리고 긴 가부장적 전통에서 오는 가족 및 집단에 대한 애착 등 ‘아마지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특징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을 아랍인으로 규정하는 사람들과 긴장을 조성

하고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였다. 특히 폭력 사태로까지 번졌던 카빌리에서 그 긴장의 수위는 가장 높았는데, 프랑스 이민자들과의 긴밀한 왕래 및 프랑스 정부와 언론의 특별한 관심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다. 자신을 아랍인으로 소개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베르베르 문제’에 대한 개인적 견해도 간단해 보이지 않았다. 카빌리 사람들의 문화 활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더 긴급한 사회·경제적 현안을 경시하고 불필요하게 정신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남부 사막지대의 빈곤층에는 무관심하면서 지역 이기주의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지나친 요구를 하는 특권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베르베르인들은 아랍어 대신 프랑스어를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아랍인과 베르베르인이라는 서로 다른 정체성으로 인한 상호 대립상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잠재태로 상존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마지겐’이 아랍어권과 같은 무슬림이며 아랍어를 병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과 아울러 알제리 전쟁에서 보듯이 국가 독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희생하였으며 정계나 군부 요직에 진출해 있고, 특히 경제계나 지식인층에 넓게 분포되어 있어 정치세력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분리 독립을 요구하거나 리비아와 같은 유혈 사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베르베르인들이 지역별로 국가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나 이해관계가 달라 단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약해 보인다. 알제리 오레스 지방 사람들은 인접해 있는 베르베르인인 카빌리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점과 아울러 이들의 무슬림 신앙심이 약하다는 점이나 폭력적 성향을 지적하기도 하면서 지역 간 경쟁심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한 현대 국가체제로 이행하면서 서로 다른 국가로 분산된 이들에게 베르베르라는 정체성보다는 소속 국가가 우선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

우도 있어 초국가적으로 단합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의문의 여지가 있어 보였다. 한 예로 서사하라 분쟁으로 인해 분열된 알제리와 모로코의 베르베르인들은 자신들이 베르베르인 이전에 ‘알제리인’이며 ‘모로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직접 전투를 경험한 사람들은 같은 베르베르인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수 루네스 마투브의 피살이 원인이 되어 10만 명이 결집했던 알제리 ‘베르베르의 봄’ 사태에서 보듯이 이 문제를 쉽게 속단할 수는 없다. 이미 정치적 쟁점이 되었고, 아직도 여전히 되고 있는 ‘베르베르 문제’에 대한 지역정부들의 대처 방향이 중요할 것이다. 게다가 경제나 인권 문제를 비롯한 대내외적인 문제들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모로코는 지난 7월 1일 개정된 헌법을 통해 베르베르적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적극적 대응으로 압력을 완화하고 있어 앞으로 추이를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알제리도 1990년대 이후 이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화하였다. 이는 내부적으로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 뿐 아니라 소수자의 문화를 인정하고, 다문화주의가 언급되는 전 세계적 맥락 속에서 시의적절한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베르베르의 봄’처럼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카빌리의 문화 운동에 대한 알제리정부의 통합 노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리비아 민주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리비아 베르베르인들의 요구도 과도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마그레브지역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베르베르인들의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문헌 연구와 현지 연구조사를 통해 도출한 결론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마그레브지역에 접근할 때 마그레브가 아랍어화된 무슬림의 단일 문

회권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베르베르적 정체성이 전면에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문화 지역이라는 점에서 아랍지역 전체와 동일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베르베르적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수의 지식, 정치, 경제계의 엘리트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그레브 지역의 정체성이 베르베르인이라는 선주민들을 통해 새롭게 정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이람·이슬람 문화 외에 다양한 문화를 통하여 새로운 각도로 북아프리카지역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지역의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여러 겹으로 누적되어 있는 이 지역의 다양한 문화가 상호 교류 및 소통하는 방식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마그레브지역의 기층 문화인 베르베르인들의 문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외부 세력이나 개입을 유연하게 수용하면서도 완벽하게 동화되지 않는 저항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1세기가 넘는 프랑스의 식민지배로부터 무장투쟁으로 독립을 쟁취한 알제리의 한 저력이 되었을 수도 있으며,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국가의 획일화 정책에도 정치투쟁에 가까운 문화 운동을 벌인 동력이 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에 대하여 대단히 평등주의적인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다는 점도 이들의 문화적 특징 중 하나이다. 부의 편중 현상을 용인하지 않으며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다소 과장된 금욕주의를 보이기도 하는 문화라는 점 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마그레브인들이 자신을 정체화하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보유할 필요가 있다. 자신을 이람인으로 규정하는 사람들과 베르베르인이라고 규정하는 경우 과거 역사인식이 다르며, 언어는 물론 여성관, 가족관, 종교 실천 등에서 매우 다를 수 있다. 이것은 알제리인, 모로코인, 리비아인 등 소속 국적에 따른 사고방식, 행위 패턴 외에도 감안해야 할 요소들이 될 것이다. 출신 지역에 따라 직업의 분포가 다르며, 동향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는 점도

현지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에 필요한 선지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알제리의 특정 지역 출신 대기업 운영자는 자신의 기업에 지역 출신을 독점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최근까지 군의 요직을 오레스 지방 세계 도시 출신이 독점하고 있었다는 점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사전에 인지하는 것은 외부인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와 마그레브 국가들 간 교류가 늘어나고 기업들의 진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대한 이해 및 현지 적응을 위하여 위의 정보를 자료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마그레브정부들에서 아랍인/베르베르인이라는 두 종족 혹은 언어권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정책의 변화 추이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역에 대한 연구를 격려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학술, 문화 등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금상문 외. 1999. 『이슬람세계의 정치와 국제관계』. 오름.
공일주·전완경. 1998. 『북아프리카사』. 대한교과서.
이규철 외. 2006. 『북아프리카 문화의 이해』.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이희수. 2001. 『이슬람문명 올바르게 이해하기: 이슬람』. 청아출판사.
정수일. 2004. 『이슬람 문명』. 창작과비평사.
이브 리코스트 외. 2011. 『마그레브, 북아프리카의 민족과 문명』. 한울 아카데미.

●● 영문자료

- Mohammed Chafik. 2005. A brief survey of thirty-three centuries of Amazigh History, Série: Traduction N^o 8. Centre de la Traduction, de la Documentation, de l'Édition et de la Communication, Institut Royal de la Culture Amazighe.

●● 불문자료

- André Bertrand. 1977. Tribus berbères du Haut-Atlas. Edita Vilo.
André Prenant, Bouziane Semmoud. 1997. Maghreb et Moyen-Orient; espaces et sociétés, Paris, Ellipes.
Benjamin Stora. 2004. Algérie: histoire contemporaine 1830-1988. Casbah

Editions.

Camille Lacoste-Dujardin. 2005. Dictionnaire de la culture berbère en Kabylie. L'Harmattan.

Gabriel Camps. 1962. Aux origines de la berbérie: Massinissa ou les Débuts de l'Histoire. Imprimerie officielle.

_____. 2007. Les berbères: mémoire et identité. Actes sud.

Jean-François Troin(sous la direction de). 2006. Le Grand Maghreb. Armand Colin.

Mohamed Alahyane. 2004. Etudes anthropologiques en Anti-Atlas Occidental : Lakhsass, Série: Etudes N° 4. Centre des Etudes anthropologiques et sociologiques, Institut Royal de la Culture Amazighe.

Mokrane Chmim. 2009. Berbères d'Afrique du Nord : être ou disparaître. Édition LESAVOIR.

Mohammed Hammam, Abdellah Salih(édité et coordonné par). 2005. La résistance marocaine à travers l'histoire ou le Maroc des résistances, Colloques et Séminaires N° 8. Institut Royal de la Culture Amazighe.

Pierre Bourdieu. 1961. Sociologie de l'Algérie. PUF.

Salem Chaker. 1990. Une décennie des études berbères(1980-1990). Bouchene.

_____. 1995. Linguistique berbère: études de la syntaxe et de diachronie. Peeters.

_____. 1998. Berbères Aujourd'hui. L'Harmattan.

Yazid Ben Hounet. 2009. L'Algérie des tribus; le fait tribal dans le Haut Sud-Ouest contemporain. L'Harmattan.

La nouvelle Constitution du Royaume du Maroc, Révisée par référendum

du 1er Juillet 2011, Bulletin Officiel No 5952bis du 14 rejev 1432.
(17 jun 2011).

부록

1. 현지 연구조사 실행 일정

서울 → Paris → Alger → Tizi-Ouzou → Béjaïa → Sétif →
Constantine → Batna → Biskra → Ouargla → El Oued → Ghardaïa →
Alger → Paris → Rabat → Fès → Chefchaouen → Tétouan → Ceuta
→ Tanger → Rabat → Paris → 서울

2. 현지 방문기관

- Université d'Alger 2(Bouzareah)
- Université de Sétif
- Centre de Recherche en Anthropologie Sociale et Culturelle
(CRASC), Université de Constantine
- Musée Aït Hamouda(Siel Haoues)
- Institut Royal de la Culture Amazighe

3. 현지 면담 대상자

- Harmouche Malek(체육교사, 49세)
- Ouakkouche Farès(의사, 56세)
- Hennani Bouabdallah(건축가, 63세)
- Naceri Rabah(전직 도의회 의장, 총 학부협회 회장, 59세)
- Allouch Mahmoud(대학생, 법학 전공, 23세)
- Messaour Haoues(대학생, 토목공학 전공, 22세)
- Hamoudi Fawzi(대학생, 전기공학 전공, 23세)
- Fenzi Mohand(대학생, 토목공학 전공, 24세)
- Boyrzane Ghilas(대학생, 법학, 23세)
- Kaleb Farid(의사, 마리부트 가문 후손)
- Tabet Nacer(건축업, 정당 당원, 50세)
- Baki Chekib-Arslane(세티프 대학 총장)
- Hobar Farida(콩스탕틴 대학 대외부총장, 전기학 전공)
- Khadidja Adel(사회학 및 인류학 전공 학자, 인류학연구소)
- Nabila Ben Bouláid(알제리 독립전쟁을 접화한 벤 블라이드의 장녀)
- Tarhlissia Fatima(가정주부)
- Mebarki Abdelmadjid(UNCPA 바트나 지국, 외국어학원 원장)
- Abdi Saci(바트나 도청 수력자원국장)
- Hellal Ahmed(퇴역 군 장교)
- Mohamed Bendjedidi(전직 상원, 대통령 직속 인권보호위원회 위원, 54세)
- Meriga Lamine(응급실 의사)
- Zaatout Ramdane(정신과 의사, 우라르글라 대학 교수)
- Nouh(음자브지역 유지, 경제인)
- F. Filali(알제 2대학 언어학 전공, 교수)

- Elmostéfat Rezrazi(교수)
- Nachid Kkesu(유적 해설사, 32세)
- Fatima Zahra Oufara(왕립 이미지연구소 도서관 사서)

* 면담자들의 솔직하고 진지한 답변에 감사한다.

A Study on Aspects of Conflict among the Tribes in North Africa: Focusing on Berbers in Maghrib

Jung-Suk Kim, Yang-Joo Kim, and Gi-Dae Lim

The regions of study for this particular project are parts of North Africa, especially the Maghrib region covering Morocco and Algeria where a series of recent political unrests that have taken place in Arabic World are latent among the various tribes living there. The reason we call the two countries “Maghrib” is that they both share the same historical experience, memories and cultural heritages.

Both countries, Morocco and Algeria, were colonized by France and also are where a majority of Berbers natives live. Most of them have converted to Islam and they have become a part of Islamic world. However, the Berbers have their own language and cultural traditions. That’s what separates the Maghrib from the rest of the Islamic countries. Although they had lived harmoniously with Arabics without much conflict, they have strongly voiced their own cultural autonomy since they gained independence in the mid 20th

Century. Such demands have continuously come into conflicts with the national plans to turn the countries into Arabic Islamic nations.

This study pays close attention not only to the aspects of self-identity, language and culture, but also to the conflicts arising from the dichotomic nature of being Arabic and Berber at the same. And then we will look further into the past and the present of the region. In order to fully comprehend this subject matter, we have carried out extensive field works by taking a long trip to the region in addition to studying various texts. We have focused our observation and research on Kabylia, Aures and M'Zab in Algeria and Rif in Morocco. It was the intent of this study to find out their place in their own countries besides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The followings are what we have studied and included in this research.

First, in order to help understand the Berbers in Maghrib, we have looked at the geological features of the region,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various tribes, the present state of each Maghrib's nations, and overall review of the region.

Second, we have looked into the Berbers, the primary subject of this project; who they are, what their own language means to them and how they have accepted and at the same time resisted the Arab Islamic culture.

Third, we have studied their history of coexistence and conflict, especially how the Arabs and the Berbers have confronted each other which forms the important basis in understanding them. We also pay attention to their continuous search for their own identity in the dichotomic state. In addition, we have looked at various examples of conflicts currently going on in Algeria and the significance of constitutional reform in Morocco which could possibly pose a big turning point to them.

Fourth, we have covered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Berbers in Algeria,

Morocco which we have found through our field studies. And we have discussed not only the values of Berber's young generation, but also the problems they face everyday.

Finally, we have attempted to offer some suggestions to help us overcome the stereotypical views we have.

김정숙(金貞淑)

프랑스 파리 4대학 불문학 박사
배재대학교 대외협력처장 역임
한국국제교육자협의회 회장 역임
마그레브연구소 소장
한국마그레브학회 회장
배재대학교 프랑스어문학과 교수(現, E-mail: kimjs@pcu.ac.kr)

저서 및 논문

「모하메드 딘의 3부작 알제리: 탈식민 이념의 설득」, (『불어문화권연구』, 20호, 서울대 불어문화권연구소, 2010)
「마그레브, 민족과 문명」(역서, 2011) 외

김양주(金良柱)

일본 동경대학 인류학 박사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특별연구원
한국문화인류학회 감사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現, E-mail: yjkim@pcu.ac.kr)

저서 및 논문

「축제의 역동성과 현대일본사회」(2004)
「지역/문화 연구의 새로운 '영역'들과 과제들: 인류학적 접근과 관점의 논의」,
「사회과학연구」, 제32집, 배재대 사회과학연구소, 2010) 외

임기대(林奇大)

프랑스 파리 7대학 언어학 박사
알제리 국립 알제대학교 초빙교수 역임
마그레브연구소 대외협력실장
마그레브 연구소 연구교수(現, E-mail: dlarleo@hanmail.net)

저서 및 논문

「독립 후(1965-1978) 알제리의 언어 교육정책: 탈식민화 과정에 관한 연구」(2010) 외
「마그레브, 민족과 문명」(역서, 2011) 외

북아프리카지역에서의 부족 집단 간 갈등 양상에 관한 기초연구

마그레브지역의 베르베르족을 중심으로

A Study on Aspects of Conflict among the Tribes in North Africa: Focusing on Berbers in Maghreb

Jung-Suk Kim, Yang-Joo Kim, and Gi-Dae Lim

본 보고서는 최근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마그레브 지역의 원주민인 베르베르족 연구에 관한 것이다. 보고서는 베르베르의 언어, 문화, 정체성 요구 문제, 그리고 아랍/이슬람과의 갈등 관계를 담고 있다. 알제리, 모로코는 북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많은 베르베르인이 있는데, 이들 국가 내 지역을 연구하고, 삶의 방식을 연구하여 지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있다. 베르베르의 존재는 아랍과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해 향후 마그레브 지역에서 중요한 변수로 예상된다. 아랍/이슬람을 지향하는 현 국가 체제는 이들의 존재를 인식하여 끊임없는 화해와 포용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과 현 상황을 총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마그레브 지역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적시하였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137-602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T.02-3460-1001, 1114 F.02-3460-1122, 1199
<http://www.kiep.go.kr>



비매품